금수강산

7

주체109(2020)
루계 제371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0 ISSN 1727—9062

표지: 《우리 민족옷이 제일이요!》
주체108(2019)년 촬영

《우리 민족옷이 제일이요!》

룡흥비단상점에서 조선비단으로 만든 민족옷을 입고 어쩔줄 모르는 남성.

색갈도 좋고 형태도 멋있는데다가 질감 또한 좋아 마음에 퍽 든다는 손님의 말에 봉사원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여오른다.

본사기자 방은심

뒤표지: 향산호텔

편집: 최은혁

차 례

19

29

30

38

50

56

생산장성의 비결

평양인견사공장에서는 최근년간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원료, 자재의 재자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왔다.

공장에서는 건조공정과 방사공정의 콤퓨터화와 콤퓨터에 의한 수송건조공정의 PLC조종체계를 확립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였다. 그리고 선진기술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켜 폐사세척기의 운전조작과 유제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였다.

뿐만아니라 공장일군들은 기술개건을 생산자대중의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종업원들속에서 현실성있는 기술혁신안들이 나오고 공장의 현대화도 빠른 속도로 진척되게 되였다.

이 과정에 공장에서는 종전에 비해 페사의 량을 훨씬 줄이였을뿐아니라 매 생산공정들의 고장요소들도 자동적으로 제때에 정확히 찾아 퇴치할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여 설비관리와 원료소비에서 적지 않은 자금을 절약하였다.

공장의 기술력량이 새로 연구개발한 전자저울에 의한 생산량계량체계도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종합함으로써 제품생산량통계에서 로력과 시간을 줄일수 있게 하였다.

원료, 자재의 재자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공장은 전진을 이룩하였다.

공장에서는 고상중축합반응에 의한 섬유급폴리에틸렌테레프탈라트(PET)생산공정을 확립하여 데트론인견실생산과정에 나온 많은 페사들을 재생리용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종업원들은 심압식지관재생기를 연구제작하여 데트론인견실생산에서 절실히 필요한 지관들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지배인 김종성은 《공장의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은 인견실의 질이자 학생들에게 안겨줄 교복과 가방의 질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렇기때문에 누구나 사소한 기술문제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거둔 성과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제품의 가지수를 늘여간다

치과위생용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는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 최근에만도 여러가지의 새 제품들을 개발하였다.

치과위생용품들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와 높아가는 문명수준에 맞게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과 잠재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기능성물질을 연구해냈다.

공장의 치과위생용품연구소에서는 세계치약발전추세에 맞게 치과질병예방과 치료에서 효능이 높은 치료용치약들과 기능성치약들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치과위생용품들을 연구개발하였다.

제품들가운데는 이몸질병들과 입냄새를 제거할수 있게 하는 항지각과민치약, 홍곡색소치약, 뽀뿌라항균치약을 비롯한 11종의 치약제품들과 유전자재조합기술이 도입되고 여러가지 효능높은 기능성재료들이 첨가된 각종 함수약들도 있다.

공장에서는 이밖에도 박하기름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제품생산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박하기름은 치약생산에서 필수원료의 하나이다.

공장의 일군들은 실정에 맞는 박하기름생산공정을 확립하는것을 기술혁신과제들중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연구에 달라붙었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일부

박현일을 비롯한 기술혁신조성원들은 공장의 실정에 맞는 박하기름생산공정설계를 한데 이어 각종 설비제작도 자체로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수차의 실험을 통해 이들은 가열탕크의 압력을 높이면서도 내부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기체의 흐름을 빠르게 함으로써 박하기름의 생산성과 질을 다같이 높일수 있게 하였다.

모든 생산공정들이 현대화된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백학》치과위생용품들은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호평받는 인민소비품들

룡흥비단상점에서

시대의 발전과 함께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수준도 부단히 높아가고있다.

최근 조국에서 생산되는 경공업제품들이 인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류행되고있는 비단제품

려명거리에 자리잡고있는 룡흥비단상점은 비단제품들을 구입하는 사람들로 항상 흥성이고있다.

이곳 봉사원은 《우리 상점에는 손님들의 수요에 따르는 여러 용도의 비단제품들이 수십가지나 된다.

각이한 주문, 제작봉사도 해주고있는데 날을 따라 그 수가 늘어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실지 조선비단치마저고리와 남녀실내옷, 남자명주솜옷을 비롯한 의복류들과 비단봄가을이불, 비단침대깔개, 비단누빔베개 등은 상점을 찾는 손님들이 먼저 찾는 상품들이다.

상점의 단골손님인 대성구역 룡흥1동에서 산다는 김진현녀성은 《비단제품들이 빛갈이 우아하고 손맛이 부드러울뿐아니라 구김이 없고 세탁도 잘된다. 특히 비단옷은 다른 섬유의 옷과는 달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스한감을 주며 천연섬유로서 인체에 좋은 작용이 있어 계속 찾게 되는 제품이다.》라고 말하였다.

예로부터 장수피복류로 알려져있는 비단제품의 사용은 조국에서 하나의 류행으로 되고있다.

누구나 요구하는 신발제품들

원산구두공장과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신발제품들이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매봉산>구두와 <류원>운동신발들이 형태도 다양하고 신기도 편리하며 질이 좋아 마음에 든다.》

이것은 지난해에 진행된 《봄철전국신발전시회-2019》에서 울려나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오늘 제품들은 국내에서 남녀로소모두가 요구하는 명제품으로 되고있다.

애용되는 기능성화장품들

《은하수》, 《봄향기》, 《금강산》화장품들은 조국의 녀성들속에서 널리 애용되는 제품들이다.

매 제품들은 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있다.

생산에서 화학적합성방법이 아니라 천연재료를 리용하여 기능성화장품들을 만들고있어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은것이다.

최근에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한 《은하수》치료용화장품들이 그러하다.

항균, 항염, 항산화작용이 우수한 벌풀추출물을 기본으로 하여 각질용해제, 계면활성제 등으로 만든 여드름치료용화장품과 로화반점들과 결점들, 검버섯 등을 줄이고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미백크림,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는 머리칼성장액과 굳은살제거용크림, 애기피부용치료크림 등 20여가지의 치료용화장품들이 개발되자마자 인기를 끌고있다.

화장품들은 개성고려인삼, 울금, 황금, 금은화 등 천연식물들을 생물공학적인 방법으로 제조하였기때문에 치료효과가 좋다고 이곳 화장품연구소 실장 박혜정은 말하였다.

이와 함께 미백, 로화방지효과가 좋은 《봄향기》화장품과 《금강산》화장품 역시 녀성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주체108(2019)년 촬영

봄철전국신발전시회장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

녀성들의 관심을 끄는 화장품매대

대 담

최소한의 투자로 실리를

경공업부문에서 설비와 원료, 자재를 국산화, 재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얼마전 기자는 이와 관련하여 경공업성 국장 김철복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현시기 경공업부문에서 설비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있습니다.

국장: 설비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는 경공업의 자립적토대와 힘을 강화하여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자는데 있습니다.

새 공장을 일떠세우거나 설비들을 현대화하자고 해도, 현존생산토대를 최대한 리용하자고 해도 자체의 기술과 자원에 의거해야 성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것을 자체로 보장할 때 그 어떤 제재와 경제파동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릴수 있습니다.

재자원화도 생산장성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재자원화는 보다 적은 자금과 자재, 로력으로 더 많은 제품들을 창조할수 있게 합니다. 생산과정에 나오는 페기물을 회수하여 생산에 리용해도 얻는 소득은 실로 큽니다. 재자원화는 그 원천이 무진장한것으로 하여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방도로 됩니다.

기자: 국산화, 재자원화에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있는지 그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으면 합니다.

국장: 지금 전국의 경공업공장들에서는 국산화, 재자원화를 자기 단위의 발전과 관련되는 사활적인것으로 여기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방직기계공업관리국에서는 방직공장들에서 요구하는 수압직기조종기판을 자체로 제작하였고 신발공업관리국에서는 신발창, 신울, 광택제, 접착제 등 신발생산용원료, 자재들을 자체로 만들어냈습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양인견사공장에서는 세척제, 균염제, 중성비누, 유제를 비롯한 화학보조자재들을 국산화하여 천생산원가를 줄이였습니다.

재자원화가 경공업발전의 동력으로 되게 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결실을 맺고있습니다. 우리 성에서는 각종 파수지를 재자원화하여 데트론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습니다.

순천구두공장에서는 재생고무의 당김세기와 늘음률을 높일수 있는 기술을 창안도입함으로써 년간 수십t의 파고무를 생산에 리용할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수지소요량의 80%를 유휴자재로 해결하고있습니다. 신의주신발공장, 흥남구두공장을 비롯한 여러 신발공장들에서는 고무탈류기술 등 실정에 맞는 재자원화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신의주법랑철기공장에서는 페기물을 회수처리하여 생산활성화에 리용하고있습니다.

이밖에도 평양가죽이김공장과 평성합성가죽공장, 평양일용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도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비중을 높이였습니다.

이 과정에 공장들의 현대화가 적극 진행되였으며 가격이 눅으면서도 품질이 담보되는 제품들이 개발되였습니다.

기자: 이야기를 듣고보니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 옳습니다. 우리 성의 일군들부터가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지는 관점을 가지고 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인민소비품전시회를 통하여 공장들사이의 기술교류, 경험교환을 자주 조직하고 아래단위들의 새 제품개발도 밀어주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새 기술, 새 제품개발이 대중적인것으로 되여 누구라없이 착상과 발명, 창의고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 경공업부문에서 이룩된 국산화, 재자원화성과는 자체의 기술, 국내의 자원에 의거하는 길만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실리를 얻는 지름길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 * *

◇ 일 화 ◇

마음속에 새겨두신것은

심중의 글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집무탁우에는 인민들의 생활의 단면을 담은 사진들이 놓여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그이께서는 자신의 심정이 담긴 뜻깊은 글을 써나가시였다.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가자고 쓰시였다.

참으로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어버이의 뜨거운 심중의 글이였다.

그이의 당부

언제인가 류원신발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신발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운동신발분야에서 발전되였다고 하는 다른 나라의 신발들보다 더 좋은 신발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의 신발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념원이였다고, 류원신발공장에서는 질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여 그 념원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마음속 첫자리

몇해전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에 새로 꾸려진 이불생산공정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겨울이불, 여름이불, 봄가을이불, 결혼식이불, 침대깔개를 비롯한 여러가지 침구류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불의 색갈, 무늬가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울뿐아니라 이불이 가벼우면서도 부드럽다고 하시며 상업망들에 나가면 인민들의 눈길을 끌고 수요가 높겠다고 하시였다.

제품창고에 그득히 쌓인 이불을 보시고는 며칠전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에 가서는 가방폭포를 보았고 오늘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와서는 이불폭포를 보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마음속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이의 심정이 담긴 말씀이였다.

본사기자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에서는 경공업부문 인재양성과 함께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식료공학부 식료가공공학강좌 교원 조명철은 삼지연들쭉음료공장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야생들쭉에 의한 들쭉가공식품생산의 전망을 열어놓았다.

세계적으로 5대건강식품, 21세기의 과일의 왕으로 인정받고있는 들쭉은 당과 산이 조화된 상쾌한 맛과 건강에 좋은 성분들을 함유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리용분야가 대단히 넓다.

특히 조국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야생들쭉은 재배들쭉에 비해 모든 성분들이 우월한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에서도 호평을 받고있다.

조명철교원은 이에 근거하여 야생들쭉을 원료로 하는 들쭉식료품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는 야생들쭉의 유효성분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제품생산공정들을 합리적으로 세우기 위한 기술과제서를 짧은 기간에 작성한데 기초하여 제품생산에서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질을 선진수준에서 담보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따라세웠다.

이 과정에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나라의 실정에도 맞는 들쭉가공공정이 확립되였으며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품의 색소가 퇴색되고 앙금이 가라앉는 현상과 들쭉의 떫은맛을 제거하기 위한 첨가제연구를 비롯하여 세부적인 항목에 따르는 연구들도 구체적으로 따라세움으로써 지금 삼지연들쭉음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은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모으고있다.

원료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사들

선진기술도입을 위해 생산현장들을 료해하고있는 대학의 연구사들

대학에서는 경공업발전의 세계적추세에 맞게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대학에서 연구한 전자기적방법에 의한 식료품살균 및 기능성재료추출기술은 많은 에네르기를 절약하면서도 식료품의 살균과 음료의 숙성, 기능성재료의 추출에서 그 효과가 좋아 첨단기술의 하나로 인정받고있다.

이밖에도 대학에서는 젤라틴연구에서도 많은 전진을 이룩하였다.

세계적으로 젤라틴은 식료공업에서는 《맛내기》 또는 천연보건영양단백식품으로, 의학부문에서는 기능성의학재료의 제조에 쓰이며 방직, 선광, 건재, 화학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그 응용범위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대학에서는 젤라틴의 공업적생산을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첨단기술제품인 식용젤라틴의 제조방법을 완성하여 내놓았다.

뿐만아니라 대학에서는 가죽제품가공에서 크롬을 쓰지 않는 가죽이김방법과 변성젤라틴을 리용한 가죽도색방법, 식료품첨가제의 미세교갑화기술, 벌집형종이속심에 의한 가구경량화기술, 빵생산용건조효모제조기술을 비롯하여 경공업기술의 개발응용과 설비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근기있게 내밀어 성과들을 속속 이루어냈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과학연구과 과장 박현덕은 《강국의 리상과 목표도 오직 과학의 첨단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와 투신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이 바로 우리 대학안의 교원, 연구사들의 한결같은 지향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춘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무장에는 무장으로

(전호에서 계속)

나는 정규군과 유격대의 차이를 설명하여주고 강대한 일본침략군과 싸워이기자면 소부대와 대부대의 령활한 배합작전, 기습전, 매복전, 정치활동, 정치공작, 생산활동 등 군사, 정치, 경제활동을 다 벌려야 하며 그러자면 자유자재로 분산과 집중을 거듭하면서 전쟁을 할수 있는 유격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몇몇 동무들이 나의 말을 듣고나서 그런 형식의 무장투쟁으로 적을 타승할수 있겠는가, 땅크와 대포, 비행기와 같은 현대적인 정예무기로 장비된 수백만대군을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그것도 남의 나라 령토에서 유격대와 같은 비정규적인 무력으로 이겨낼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들이 그런 의문을 표시하는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내자신도 사실 그런 가능성여부를 여러번 저울질해보았다.

우리가 몇자루의 총을 가지고 일본과 같은 군사강국에 감히 대항해나선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의병도 독립군도 장학량의 30만대군도 모두 일본군대의 위력앞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들을 타승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국권이 있는가, 령토가 있는가, 재부가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국권도 령토도 자원도 다 빼앗긴 망국노의 아들들이다. 지금은 남의 나라 땅에서 결방살이를 하는 적수공권의 청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전해 나섰다. 무엇을 믿고?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였다.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규군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여 일어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리게 될 유격전은 인민전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장시간의 론쟁을 거쳐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문제에서 완전한 의견합치를 보았다.

유격전은 자체의 력량을 보존하면서도 적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타격을 줄수 있고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능히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소멸할수 있는 무장투쟁방법이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과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에 의거하면서 유격전의 방법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한다면 종국적으로 적을 타승할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남들이 다 유격전을 정규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보고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인 투쟁형식으로 확정하고 방침으로 채택한것은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는 과학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결단이였다.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 론의가 끝나자 우리는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협의하였다.

먼저 혁명무력건설문제가 상정되였다. 우리는 그때 처음에는 지방마다 소규모의 유격대를 조직하고 그를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해가면서 점차 그것을 대부대의 혁명무력으로 발전시키되 첫 단계에서는 대대를 건설하였다가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인민혁명군으로까지 발전시키자고 토의하였다. 뒤이어 무장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도 토론하였다.

유격대조직에 관한 론의는 근거지에 대한 화제에 자리를 내주었다. 반일유격대가 조직되면 활동기지를 어디에다 두겠는가, 산에 두겠는가, 도시에 두겠는가, 농촌부락에 두겠는가 그리고 조선도 만주도 다 일제의 강점하에 있는 형편에서 유격전의 기지를 국내에 두겠는가, 만주에 두겠는가 하는 문제를 설정하고 의견들을 진지하게 교환하였다.

어떤 군대에나 지탱점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소학생도 알수 있는 간단한 상식이다.

우리 무장력이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싸우는것만큼 전투가 끝난 다음 안전하게 휴식하면서 대렬도 정비하고 무기와 탄약도 보충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부상자도 치료할수 있는 근거지가 있어야 유격전쟁을 장기간에 걸쳐 근기있게 해나갈수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유격대를 조직하는 동시에 자체의 힘으로 근거지도 꾸려야 하였다.

우리는 활발한 론의끝에 군중토대가 좋고 물질적보장조건도 괜찮으며 지형이 유리한 간도의 산간지대들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넓은 면적을 가진 만주대륙은 조선보다 적들의 통치밀도가 희박한것만큼 당장은 간도에 먼저 기지를 정하고 때가 오면 국내에도 나가 백두산대수림지대와 랑림산줄기를 타고앉자고 하였다.

근거지는 적들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해방지구형태가 기본으로 되여야 하며 국내작전을 하는데서나 조국인민들의 지원을 받는데서 다같이 편리한 두만강연안의 산간지대들에 반드시 꾸려야 하였다. 두만강연안에는 물질적보장조건이 좋고 적들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나 우리가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지형의 산간마을들이 적지 않았다.

근거지로 꾸릴 구체적인 대상지들을 선정하기 시작하자 리광, 오빈, 김일환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이 앞을 다투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았다. 그들의 제의에 따라 어랑촌, 우복동, 왕우구, 해란구, 석인구, 삼도만, 소왕청, 가야허, 요영구, 대황구, 연통라자와 같은 천험의 요새들에 근거지를 꾸리기로 하였다. 그 지역들에는 추수투쟁후 일제의 《토벌》을 피하여 들어온 혁명군중들이 집결되여있었으며 이미 적위대까지 조직되여 혁명조직들과 인민들을 지키고있었다.

론의가 심화되고 구체화될수록 근거지를 장기간 운영하고 유지하는 문제 즉 농업생산과 경제운영은 어떻게 하며 무기수리소와 병원은 어떻게 꾸리며 주민행정사업은 누가 맡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복잡한 실무적문제들이 끝없이 제기되였다.

우리는 본회의에서 무장투쟁을 위한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 문제와 조중인민의 반일공동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문제, 당조직사업과 공청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였다.

이 모든것은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는 무장투쟁을 벌리는데서 반드시 해결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들이였다. 회의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방침으로 정식화되였다.

그것은 참으로 거대하고도 심원한 창조적사업이였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유격전사를 들추어보아도 우리 나라 혁명실천에 그대로 적용할수 있는 표본을 찾을수 없었기때문에 우리는 오직 자기 머리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근거지를 꾸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은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없는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유격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피할길 없는 숙명적인 과제였다.

이 과제해결에서 만일 우리가 정규군의 지원을 전제로 하여 그와의 배합으로 유격전을 벌린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교조적으로 모방하였더라면 만회할수 없는 엄중한 실패를 당하였을것이다.

어느해인가 라틴아메리카에서 항쟁운동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유격전쟁의 경험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는 항일전쟁시기의 경험을 몇가지 들려주고 나서 유격전에는 만능의 공식이 있을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적인 지혜가 가장 높이 발휘되여야 하는 거창한 창조적투쟁이다, 우리의 경험이 당신들에게 일정한 도움으로 될수 있겠지만 그것을 절대화하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른것만큼 당신들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투쟁방법과 형식을 창조하고 활용해보라, 거기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 항쟁운동지도자는 내 말을 듣고 한참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자기네 나라에는 산악지대가 많은데 지금까지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유격전에 치우쳐왔다, 그래서인지 성과는 적고 손실이 많았다, 앞으로는 실정에 맞게 산을 끼고 농촌유격전을 기본으로 항쟁운동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본회의를 끝내고 활동지역들에 돌아가면 곧 유격대조직에 착수하기로 하고 토의를 끝내였다. 일제침략자들의 류혈적인 탄압과 《토벌》에 혈육들을 잃고 동지들을 잃을 때마

다 가슴을 치며 그렇게도 갈구하던 우리 군대, 우리 무장력의 탄생을 가까운 래일의 일로 바라보게 된 청년들은 일제히 일어나 《혁명가》와 《인터나쇼날》노래를 부르며 그 장중하고 우렁찬 선률로 사랑하는 조국과 혁명앞에 드리는 선서를 하였다.

명월구회의에는 동장영을 비롯한 중국공산주의자들도 여러명 참가하였다. 그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주민들이 압도적다수를 이루고있는 동만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일대에서의 조중인민의 친선과 조중공산주의자들의 합작을 처음부터 매우 중시한 선견지명이 있는 혁명가들이였다.

동장영은 동만에서 오래동안 투쟁해왔고 경험도 많이 축적한 조선동지들이 중요한 발언을 하여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나는 회의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골자로 하여 무장대오조직과 무장투쟁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두고 중국말과 조선말을 엇바꾸어가며 선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중국동지들도 그 구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유격전쟁의 형식문제, 유격대조직문제, 유격근거지문제를 비롯하여 어느 문제에서나 그들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때로부터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인민의 무장투쟁은 대륙을 진감시켰고 위대한 조중친선의 전통은 혈전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1931년의 겨울명월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회의이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회의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되였던 무장투쟁로선은 이 회의를 통하여 심화발전되였다. 카륜에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그 최고단계인 무장투쟁에로 이행시키려는 조선민족의 의지가 확인되였다면 명월구에서는 그 의지가 거듭 확인되고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라는 구호밑에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항일전쟁이 정식으로 선포되였다. 바로 이 회의에서 유격전의 방향을 규정해주는 전략과 전술적원칙의 골자가 마련되였으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비상히 풍부하고 변화무쌍한 무장투쟁의 전법들이 창조되였다.

명월구회의가 끝난 다음 나는 백바위밑에서 동장영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대련감옥에 갇혀있는 김리갑과 방직공장에 적을 두고 공청사업을 하면서 그의 옥바라지를 하고있는 전경숙에 대한 이야기를 동장영한테서 들은것이 그때였다고 생각된다.

동장영은 주민구성뿐아니라 동만당조직들의 당원구성을 분석해보아도 그 대다수가 조선동지들이라고 하면서 나더러 그들을 대표하여 자기 사업을 잘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동만에서 혁명투쟁의 주력군은 조선사람들입니다. 조선족주민들에 의거해야 유격전쟁은 승리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리간질을 해도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편견을 막아낼수 있을것입니다. 특위는 앞으로 조선동지들과의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데 많은 방조를 바랍니다. 나는 **김일성**동지를 믿겠습니다.》

나는 그의 당부를 뜨겁게 받아들이였다.

《두 민족간의 단결에 대해서는 우리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으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조중인민들사이에 생긴 일시적인 불신은 유격전쟁의 총성이 다 제거해버리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서로 굳게 손을 틀어잡았다.

그후 나와 동장영은 이날을 자주 회상하였다.

주은래총리는 내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연회연설이나 회담들에서 1930년대초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무장력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조중친선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고 하면서 그 친선의 뿌리깊은 전통에 대하여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조중친선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명월구의 회의장을 생각했고 우리와 함께 포연탄우속을 헤쳐온 위증민, 동장영, 진한장, 왕덕태, 장울화, 양정우, 주보중, 호진민을 비롯한 중국의 친근한 공산주의자들을 목메이게 회억하군 하였다. 친선의 정도 인간감정인것만큼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맺어져야 공고한것으로 되며 또 그렇게 맺어진 정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식을줄 모르는것 같다.

(끝)

수 기

언제나 농장벌에 계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 땅우에는 그리움의 대하가 굽이치고있습니다.

남녀로소 누구나가 다 그러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그리움은 더더욱 절절한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이께서 생전에 언제나 농장벌에서 농민들과 함께 계시였기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이께서 그리 크지 않은 우리 농장에만도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그이께서는 1년 사계절 휴식날과 명절날이 따로없이 찬눈비와 삼복더위도 가리지 않으시고 포전길을 걸으시면서 농민들에게 영농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사랑과 은정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그이의 현지지도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먼저 앞서군 하는 그날은 주체83(1994)년 6월 어느날이였습니다. 6월이라 하지만 서해의 세찬 바람이 포전길의 먼지까지 휘몰아올리며 기승을 부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날에 그이께서 80고령이시였지만 우리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후에야 알게 되였지만 그이께서는 지방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면서 우리 농장의 농사작황을 알아보시였던것입니다.

그이께서는 강냉이밭을 좀 보자고 하시면서 천천히 포전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그때 길옆의 포전에서는 한창 거름독이 오른 푸른 강냉이들이 불어오는 바람결에 큰 잎을 흔들어대고있었습니다. 한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그 전경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강냉이가 참 잘되였다고 하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였습니다. 금당협동농장 제3작업반 포전을 보아도 강냉이의 키가 크다고, 그만하면 강냉이농사가 잘되였다고 치하해주시였습니다.

한동안 강냉이밭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강냉이 정보당 예상수확고에 대하여 알아보시고나서 농사를 아주 잘했다고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며 다른데서도 다 여기처럼 농사를 해야 한다고,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올해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습니다.

이날 전국의 모든 농장들이 우리 농장의 농사경험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강냉이

초기작황이 이렇게 좋은것만큼 이제는 가물만 이겨내면 된다고 하시면서 발관개정형도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 기후의 특징은 5～6월에는 가물기때문에 이 시기에 농작물들이 가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수를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르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늘 한점 없는 포전머리에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였습니다.

그러느라니 시간이 퍼그나 흘러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세차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런 바람을 맞아야 풍년가을을 본다고 하시며 포전길을 계속 걸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에야 이날 그이께서 우리 인민들이 가슴아파할가봐 지팡이를 차안에 두시고 포전길을 걸으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 눈물겨운 사연을 전해들은 농장원들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포전길을 그리도 많이 걸으신 수령님을 그리며 포전마다 비료를 쳤으며 포기마다 땀방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이의 유훈을 지켜 해마다 질좋은 거름을 논과 밭에 내여 지력을 높이고 발관수체계도 실리에 맞게 하였으며 농장마을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려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농장에서는 알곡수확고를 더 높이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더 잘 지어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생전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남포시 온천군 금당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채영철

김정은, 그이에 대한 100문 1답

(전호에서 계속)

2. 《정치인가, 복무인가》

이것 역시 세인들이 론하는 대표적인 의문점이다. 이를테면 인민을 상대로 한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활동방식이 정치인가, 복무인가 하는것이다.

재도이췰란드동포 정진명은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에는 한다하는 국가지도자들, 정치가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공약이나 언약을 보면 <경제장성>과 <만민복지사회건설>이고 결론 또한 <…한다>, <…될것이다>, <…확신한다>이다. …대부분 선거철의 말로 끝나는것이 허다하다.

일부 국가지도자들, 정치가들은 민생행보도 이따금 하지만 그것도 보여주기식이다. 그나마 시장이나 가게방 그리고 음식점에서… 주민들과 몇마디 말을 나누고는 돌아서기 일쑤이다.》

계속하여 그는 《지금 조선에서의 정치는 신선한 충격을 주며 세인의 주목을 끌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조선말사전에 의하면 정치란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으로 되여있다. 동시에 복무는 《몸바쳐 이바지하는것》이다.

이 서로 다른 두 의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활동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것인지.

여기에 귀화한 일본인녀성 림경심에 대한 이야기를 잇달아본다.

그는 조선사람인 이붓아버지를 따라 공화국의 품에 안기였다.

그러한 그의 운명에 뜻밖의 일이 닥쳐왔다. 맏아들이 나라에 죄를 짓고 법적처리까지 받게 되였다. 그는 자기의 래일을 두고 불안과 눈물속에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많은 사람들의 각별한 교양과 관심속에 한개 단위의 일군으로, 조선로동당 당원으로 자라났다.

림경심녀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편지를 올리였다. 그는 《일본에서 살았더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사랑이》 자기들을 키웠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해빛이 넘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정녕 저의 모국, 어머니품》이라고 썼다.

이 편지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우리 당은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더 깊이 품어주고 내세우고있다고 회답서한을 보내시였다.

돌이켜보면 그이를 어버이로 믿고 따르는 이러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겨져있다. 오래동안 숨겨오던 집안의 허물을 그이께 터놓고 마음속고충을 가신 철도성아래 어느 한 단위의 청년 박성민, 군사임무수행중 희생된 자기 아들의 묘주가 되여주신 그이를 어버이라고 격정을 터친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의 리경애녀인, 그이께서 1절부터 3절까지 써주신 가사 《어머니의 목소리》를 받아안고 대를 이어 충성을 맹세한 평양우편국 운수직장 고봉춘의 가정…

놓고보면 그이의 심중에는 인민을 위한 정치와 복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응결체로 비쳐지고있는것이다.

실지 그이의 활동은 인민에 대한 헌신과 복무로 일관되여있다.

그이께서는 하나의 정책을 작성해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중핵으로 놓으신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3월 해외의 언론들이 강조한 글들이 상기된다.

《온 세계가 신형코로나비루스전파사태로… 갈팡질팡하고있는 때에 북에서 감염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은것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지만 그보다는 세계적인 전염병대란의 와중에서도 인민을 위한 종합병원건설을 발기하고 착공한것 자체가 력사에 남을 전설적인것이다. 이것은… 인민중심의 북에서만 가능한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이 연설(착공식)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20여회나 언급했는데 이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강조이며 인민우선의 연장선이다. 북은 그야말로 인민의 지상락원이며 인류가 리상하는 에덴동산이자 무릉도원이다.》

그이께서는 이렇듯 인민을 존중하는 리념을 안으시고 인민의 웃음을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시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어디나 찾아가신다. 위험천만한 최대열점지역인 조선서해의 장재도와 무도, 머나먼 북변의 라선시 백학동마을, 궂은비 내리던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장과 폭설이 몰아치던 삼지연시의 공사장, 공장과 농촌, 과학연구기관과 학교,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

그렇게 찾으시는 단위들마다에서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생활형편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신발이 닳도록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자고 일군들을 고무해주신다.

때로는 어린이들이 무람없이 올리는 편지도 다 보아주시고 정을 담아 회답편지도 보내주신다.

그 길마다에서 인민들의 목소리는 뜨거움에 젖어있다. 인민들이 리용할 삭도인데 자신께서 먼저 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이께서 오르시였던 마식령스키장의 삭도를 타보아도, 우리 원수님께서 신으신 그 눈에 익은 운동화가 뒤축이 닳았더라고 하며 눈물짓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의 건설자들을 만나보아도 누구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그이는 어버이시라는것이다.

하기에 그이께서 오시면 저마다 너무 기뻐 그이품에 안겨드는것이고 떠나실 때면 운명의 손길을 놓치는것만 같아 엎어지면서도 눈덮인 령길을 달리고 파도세찬 바다에도 뛰여들어 그이를 따라서는것이다.

철부지 원아들마저 너도나도 《원수님, 안아주세요.》 하며 그이품을 파고들고 머리 흰 로인들도 그이의 팔을 꼭 끼고 격정속에 사진들을 찍는다.

이들은 이러한 노래를 즐겨 부른다. 《자나깨나 원수님생각》, 《언제나 그이곁에》, 《그리움》, 《그리움의 하얀 쪽배》…

노래는 심장의 언어라고 한다. 이 서정에 사색을 잠그느라면 민심의 깊은 곳이 보인다. 그것은 인민의 마음속에 그이께서 계시고 그이의 마음속에 인민이 있다는 이 나라 고유의 철학이다.

두해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찾으신 자리에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은 자신의 둘도 없는 인생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를 놓고보면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는 그이께 있어서 령도자로서의 정치적의지이기전에 삶의 목적이고 활동의 전부인듯 하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우리 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중국 연변대학 교수 김일은 《**김정은**시대 조선의 정치방식》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이는 대외활동에서는… 로숙한 정치가이시지만 자국의 인민을 대하실 때면 사소한 간격이나 격식도 없이 머리숙여 인사도 하시고 안아주시며 지어 업어주기까지 하시는 평범한 인간이시다. …오늘 세계가 <조선인민의 젊은 지도자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등으로 격찬하고있는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본다.》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 바로 이 하나의 부름속에 세인들의 100가지 물음에 대한 답이 있다고 본다.

(끝)

본사기자 홍정혁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오늘 세계에는 수많은 당들이 존재하며 자기 나름의 지도사상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리념을 내세우고 인민의 지지를 모색하는 당들도 많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당의 지도사상은 당의 투쟁목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는 당의 기본리념으로서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혁명적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있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자주시대의 혁명사상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주체사상은 자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력사는 곧 혁명적당건설과 당활동의 력사이며 당건설과 당활동의 성패는 어떤 사상을 출발점으로 하는가에 달려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지도적지침이다.

오늘 조국이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물리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바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있기때문이다.

당건설을 철저히 **김일성-김정일**주의로부터 출발하여 진행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은 조직사상적으로 가장 공고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로동당이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가 튼튼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전변된것은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업적이다.

정당정치로 특징지어지는 현세계의 정치무대를 둘러보아도 조선로동당과 같이 사상의 일색화가 확고히 실현된 당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지난 세기 말엽 일부 동유럽나라들에서 집권당이 붕괴되던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의 불패성은 더욱 공고화되였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되였기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았기에 조선로동당은 창건 첫날부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의 리익과 지향실현에로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조선로동당은 로선과 정책을 하나 세워도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세우고 철저히 집행해나가고있다. 한가지 일을 해도 인민이 덕을 보고 인민이 좋아하게 해야 한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립장이다.

인민을 위하여 무료교육, 무상치료는 두말할것도 없고 무상으로 살림집을 쓰고 살도록 하고 세금이라는 말자체를 없앤 사실만 놓고서도 조선로동당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현시기 조선로동당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당풍으로 확립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침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이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번영을 이룩할것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고야말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정순녀

단상

인민군렬사추모탑을 바라보며

노을비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인민군렬사추모탑앞에 서니 침략자들을 물리친 화선용사들의 숨결이 들려오는듯 싶다.

총창을 비껴들고 고지에로 육박하던 용사들의 함성도, 승리한 고지우에 휘날리던 공화국기발의 펄럭임소리도, 고지에 홀로 남았지만 적들에게 섬멸의 불줄기를 멈추지 않던 용사의 그 기관단총소리도 금시 들려오는듯.

영웅들이 피로써 지킨 땅에서 나서자란 새 세대들이 전화의 용사들과 말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조국이 낳은 장한 아들딸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은 꽃다운 청춘도, 둘도 없는 목숨도 그렇듯 서슴없이 바쳤던가.

다시 빼앗겨선 안될 땅이기에, 삶도 기쁨도 영광도 그 품에만 있기에 용사들은 불뿜는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았고 수류탄묶음을 안고 적진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었다.

렬사들이 나서자란 고향은 서로 다르고 최후를 마친 날도 같지 않다.

그러나 모두가 오른 곳은 금별메달과 함께 빛나는 값높은 영광의 최절정이다.

힘있게 나붓기는 저 공화국기발과 영웅메달에 그들의 위훈이 다 담겨져있다.

리수복, 한계렬, 조군실, 강호영, 안영애, 조순옥…

영웅들은 그날의 군복차림으로 우리들에게 귀중한 삶의 진리를 새겨주며 이렇게 당부하고있다.

조국수호의 정신과 위훈을 대대손손 이어가라고.

소중한 이 땅을 굳건히 지키고 피땀으로 가꾸며 빛내가라고.

본사기자

수 기

1211고지방어전투를 회상하며

세월은 류수와도 같아 어느덧 내 나이 아흔고개를 바라본다.

그러나 전화의 추억은 내 기억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조선인민군 포병의 위력을 과시한 1211고지방어전투를 생각하면 통쾌함을 금할수 없다.

고지의 높은 산정에서 벼락치듯 쏟아지는 76㎜직사포탄, 82㎜박격포탄에 얼혼이 나간 적들이 아우성치며 하늘을 쳐다보던 몰골이 눈에 선하다.

주체40(1951)년 8월 조성된 정세로부터 가장 치렬해질 1211고지방어전투에서 포무력의 중요성을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포들을 고지우에 올려놓고 적을 족칠데 대한 독창적인 포병전법을 내놓으시였다.

그리하여 1211고지방위임무를 맡은 제2군단관하 포병들은 100여문의 포를 끌고 강행군을 시작하였다.

그때 19살이던 나는 76㎜직사포중대의 포병이였다.

구름이 산허리를 감도는 높은 고지들에 직사포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투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우리는 적들의 감시를 피해 밤마다 포를 끌어올렸는데 그것은 희생을 동반한 또 하나의 결사전이였다.

적들의 포탄과 기관총탄이 때없이 날아오고 탐조등불빛이 산비탈을 핥으며 지나갔다. 우리는 목도채를 멘채로 땅에 엎드렸다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포를 잡아끌며 안깐힘을 다해 또 끌어올렸다.

이렇게 한치한치 밤새 오른것이 600m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마침내 직사포들이 전개되였으며 높은 산정에서 직사포와 적땅크사이의 격전이 시작되였다.

목표를 향해 포탄들이 련거퍼 날아갔고 하늘을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적땅크들에서 불이 일었다.

거만하게 릉선으로 기여오르던 적땅크들이 삽시에 불벼락세례를 받았다.

이날 적들의 진지앞에서는 포신이 꺾이운 땅크들이 삼단같은 불길을 일구며 하루종일 타고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멸망에 직면한 적들을 모조리 화장해버리는듯이 통쾌하였다.

우리는 그후 계속되는 싸움에서 적땅크뿐아니라 적진에 교묘하게 설치된 감시소, 토목화점들과 방송국 등 적방어전연의 목표들을 직접조준사격으로 소멸하여 보병의 방어전투를 믿음직하게 지원하였으며 적의 중요화력기재들을 파괴하였다.

우리의 포사격앞에 적들은 《인민군대가 하늘에서 불소나기를 내린다.》, 《인민군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벼락포를 가지고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포병들은 현대전의 력사에도 있어본적 없고 그 어느 나라 병서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식의 전법으로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안기고 조국의 고지를 사수하였다.

방어전투에서 세운 위훈으로 우리는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나에게는 전사의 영예훈장 제2급이 수여되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포병전법이 안겨준 값높은 칭호였고 영예였다.

고지사수의 나날 우리는 포병전의 능수들로 성장하였다.

포병들만이 아닌 방위자들모두가 싸움의 강자들로 자라났다.

나는 지금도 고지우에서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승리의 만세를 목청껏 웨치던 그날을 잊을수가 없다.

그때의 함성은 침략자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은 승리자의 함성이였고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의 전사된 긍지와 영예감의 분출이였다.

그때의 그 여운은 나로 하여금 전후에도 40여년간 군복을 입고 복무하게 한 까닭이기도 하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어느덧 6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모든것을 추억으로 남긴다지만 포연속에서 간직했던 전사의 긍지와 영예감만은 오늘도 생생히 남아있다.

그것은 대대로 최고사령관복을 타고난 우리 조선인민군만이 가질수 있는 행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전승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전쟁로병 박중흥

관상효과가 좋은 말린소나무

평양화초연구소 말린꽃제작소의 연구사, 제작공들이 5그루의 말린소나무를 제작하였다.

말린소나무들은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른데 제일 큰것은 150㎝정도 되고 제일 작은것이 50㎝정도 된다.

말린소나무는 생육을 억제시켜 일정한 형태로 모양을 잡아 오래동안 자래운 소나무처럼 형상되였다. 구불구불하고 터실터실한 줄기, 푸른 솔잎, 솔방울 등은 마치 살아있는 소나무를 보는듯 하다.

공영심연구사의 말에 의하면 제일 큰 말린소나무를 제작하는데 근 1달이라는 시간이 걸리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 경험이 생겨 이제는 말린소나무를 더 빨리, 더 많이 제작할수 있을것 같다고 그는 말하였다.

제작소에서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말린소나무를 제작하여 봉사해주고있다.

실내관상용과 정서생활에 좋은 말린소나무가 제작됨으로써 국수인 소나무는 인민의 생활속에 더 가깝게 자리잡게 되였다.

본사기자

해칠보의 파도

사진 김영일

《꽃》은 어떻게 피여나는가

로동자대의원

평양시에 있는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 반장 조길녀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다.

그는 6년전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 이어 지난해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서도 선거자들의 찬성투표를 받았다.

선거당시의 광경을 목격한 외국기자들은 이 녀인이 로동자가 맞는가, 누가 추천하였는가,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등 많은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결코 이 녀인에게 특별한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있다면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들에 대한 복무정신일뿐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에서는 보통날에나 어려운 날에나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것을 비롯하여 인민들을 위한 많은 시책을 실시하고있다. 이러한 고마운 조국에서 사는 공민으로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

이런 마음을 안고 20년전 도로관리공이 된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모습을 언제한번 흐리지 않았다. 가정의 주부로서 해야 할 일도 많았지만 그는 이른 새벽에도, 때로는 깊은 밤에도 맡은 도로구간을 청소하느라 늘 길거리에 나가있었다.

1년 사계절 눈비를 맞으며 오로지 거리의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애쓰는 녀인, 누가 보건말건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찾아하는 그를 주민들과 직장성원들, 나라에서는 인민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였다.

조길녀(가운데)

조수경

시대의 전형으로 된 녀인

《개발창조의 길에서 타고난 인재란 없다. 나라에 필요한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사람이 인재가 될수 있다.》

이것은 평양기계대학 자원개발기계공학부 연구사 조수경의 지론이다.

조수경연구사의 추억에 의하면 그는 어릴적에 바이올린연주가가 될 꿈을 꾸었고 중학시절에는 아버지처럼 의사가 될것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그가 기계공학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된것은 그의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면 나라는 기술의 노예가 된다. 나라의 은덕으로 공부를 했으면 응당 지식으로 유익한 창조물을 내놓아야 한다.

그는 중학시절부터 아버지의 이 말을 외우며 자랐고 의학발전을 위해 한생토록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과학자의 깨끗한 마음을 읽었다고 한다.

그후 그는 사색의 실마리를 이어가며 실패와 중압을 이겨내야 하는 과학연구의 길에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으며 한걸음한걸음 탐구의 길을 개척하였다.

실적에만 급급한 일부 사람들이 불결한 요소가 있는것을 알면서도 발명품의 시운전을 재촉할 때에도 《과학자들은 나라를 속이고 자신을 속일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도 과학자이기 전에 녀성이였고 며칠밤을 패면 쓰러지는 육체적한계가 있으며 실패앞에서 괴로움에 모대기는 보통의 인간이다.

누가 알아주건말건 그 모든 어려움을 과학자의 량심으로 이겨내며 개발창조의 숫눈길을 헤쳐온 그는 지난 20여년간 자동화된 양말포장기제작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현대화에 이바지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공훈과학자의 명예칭호와 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았다.

나라에서는 그를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었다.

김동순

나라의 꽃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이를테면 녀성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이다.

얼마전 우리는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김동순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우리 민족사의 갈피를 보면 지난날 녀성들은 봉건의 멍에와 일제의 식민지폭압속에서 천대를 받아왔다.

김동순: 오죽했으면 열두폭 무명치마가 눈물에 다 썩었다는 노래까지 불렀겠는가.

이 가슴아픈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것이 남녀평등권법령이다.

일찌기 항일의 나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제시하시면서 녀성해방에 관한 사상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7월 30일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시여 녀성들의 사회적지위를 남성들과 동등하게 올려세우시였다.

그때로부터 조선녀성들은 수천년동안 고질화되였던 봉건적억압과 굴욕에서 해방되여 남성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가하게 되였다.

기자: 녀성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높아졌다고 본다.

김동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온 나라에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사회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였다.

그 흐름속에 지금 각곳에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같이 녀성들을 위한 시설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그리고 녀성들은 나라의 중요한 일터를 맡은 일군으로,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 인간개조의 선구자, 인민과학자, 인민배우, 인민체육인 등으로 자라나 부강조국건설에서 위훈을 수놓아가고있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로동과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가정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투각무늬도자기꽃병

투각무늬도자기꽃병은 주체80(1991)년 9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제87차 재중동포조국방문단이 올린 선물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을 지켜싸운 로병들로 구성된 재중동포조국방문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체험한 증견자들이였다.

그들은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범한 전략전술로 이 땅에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인민이 주인된 사회제도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이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자기꽃병을 선물로 올릴 결심을 하였다.

흰색자기병에 투각무늬로 아름다운 꽃장식을 한 도자기꽃병은 국가선물관에 보존되여있다.

* * *

애국위업을 받드는 예술인들

사랑받는 예술인

총련 금강산가극단에는 근 30년간이나 예술활동을 하고있는 관록있는 예술인이 있다. 김명희녀성이다. 노래와 춤도 잘하지만 그의 기본특기는 설화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자부심, 애국위업과 민족교육에 대한 열정을 풍부하고 감동적인 표현력으로 형상하는 그의 설화는 언제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군 한다.

애젊은 시절에 가극단에 들어와 조국과 동포사회에서 진행된 수많은 공연들에 출연하면서 그의 정신적키는 부쩍 자랐다. 여러모로 미숙한 자기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격려해주는 조국인민들과 동포들의 모습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은 그는 자기의 예술적기량을 련마해나갔다. 그가 오늘 공훈배우로 성장할수 있은것은 일본땅에서 민족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려는 결심과 노력이 확고하고 꾸준하였기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자기를 위해 동포들이 마련한 뜻깊은 공연에서 김명희녀성은 동포사회에 애국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몰아치게 하는데 앞장설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동포사회의 나팔수로

오사까의 한 극장에서 총련 오사까조선가무단은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목을 끈것은 이 공연이 가무단을 사랑하고 후원하는 지역동포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조직된것이라는것이다.

오사까지역 동포들이 《우리 가무단의 특기는 재미나는 선동극》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가무단은 선동작품들을 잘 형상한다. 몇해전 조정심단장이 준비한 재담 《우리 말속에, 웃음속에》는 동포들로부터 대절찬을 받았었다. 동포생활의 이모저모를 담은 이런 작품들은 늘 동포사회를 흥그럽게 해준다. 이번 공연에서도 조정심단장은 재치있는 이야기와 화술로 가무단의 특기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하면서 가무단성원들이 각종 행사들에서 즐겨부르군 하는 노래 《우리의 국기》가 장내에 울려퍼지자 동포들은 숙연한 감정에 휩싸였다.

조선노래련곡무대에서는 출연자와 관객이 따로 없었다. 말그대로 대합창이였다. 단장이 부른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절정에 달하게 하였다.

동포들은 《우리 가무단이 제일이다!》고 웨치며 흥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가무단성원들은 결코 무대에서만 활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가 사는 곳의 총련지부사업에도 예술인으로서 적극 참여하고있다. 동포로인들을 위한 건강체조지도, 학생들의 예술소조활동에 대한 방조, 학생인입사업 등 여러 활동이 진행되는 장소들에서 이 가무단예술인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가무단성원들은 동포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는 예술활동으로, 동포사회의 나팔수로 그들의 애국열의를 더욱 고조시켜나가기 위한 공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있다.

* * *

조선속담 (민첩성)

- 게 눈 감추듯 (한다)

음식을 빨리 먹는 모양을 비겨이르는 말이다.

-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다)

① 동작이 재빠름을 비겨이르는 말이다.

② 한사람이 여기저기에 계속 나타남을 이르는 말이다.

- 번개불에 콩 닦아먹겠다

① 행동이 매우 빠르고 날래다는 것을 비겨이르는 말이다.

② 그 어떤 행동을 당장 해치우지 못해 안달아한다는 뜻으로 조급한 성질을 이르는 말이다.

* * *

복강경수술을 개척한 병원

평양시 만경대구역 금성1동에는 평양시제3인민병원이 있다.

주체77(1988)년에 창립된 병원은 30여개의 과를 둔 종합적인 치료예방기관이다.

류림원장은 《병원의 주요의료설비들에는 이국땅에 살면서도 조국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손원태, 박세록동포를 비롯한 재미동포들의 마음이 깃들어있다.》라고 말하였다.

개원후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의술을 높이고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 과정에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21세기 5대과업의 하나인 복강경수술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척하고 발전시켰다.

환자에게 육체적부담을 적게 주고 흠집을 크게 남기지 않으며 회복기일이 빠른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우점을 가지고있는 복강경수술은 높은 의술을 요구한다.

병원의 의료집단이 복강경수술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것은 20여년전부터였다고 한다.

경험도 없고 모르는것이 많았지만 복강경실의 의사들은 지혜와 열정을 합치였다. 이들은 문헌자료들을 탐독하고 선진수술방법들을 꾸준히 련마하였다.

주체88(1999)년에 복강경에 의한 충수수술에 이어 담낭수술에서도 성공하였다.

보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하나하나 축적하면서 이들은 담낭염을 비롯한 소화기분야는 물론 산부인과, 비뇨기외과 등 그 령역을 확대하면서 그에 맞는 새로운 복강경수술방법들을 련이어 확립하였다. 그리고 림상과정에 효과성이 충분히 립증된 복강경수술방법들을 여러 치료예방기관들에 널리 보급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도와주었다.

최근에만도 실장 김순길, 박인호를 비롯한 실의 성원들은 복강경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던 산부인과질병과 복부질병에 대한 수술에 성공하여 또 하나의 의학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수천건의 복강경수술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소생시키였다. 이 나날 국가발명권 2건, 과학기술성과등록증 3건, 창의고안증서 32건을 받았으며 세계보건기구학술토론회와 세계저침습외과학회토론회에도 여러차례 참가하였다.

이들만이 아니다.

소생 및 집중치료과의 의사들은 골성형성개두술로 진행하던 경막외혈종제거를 보다 저침습적인 수술방법을 도입하여 환자치료를 진행하고있다.

외상정형외과에서도 전신 60%가 2도, 3도화상으로 사경에 처하였던 한 환자를 소생시킨것을 비롯하여 최중증환자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등 높은 실력으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켜나가고있다.

최근년간 병원은 제17차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와 제8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에서 종합 1등을 하였으며 전자식전위선수술방법, 후천성심장병의 외과적치료방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치료방법들이 국제적인 의학과학토론회들에서 평가되였다.

림상과 그 연구에서 큰걸음을 내디딘 병원은 환자치료에서 자기의 모습을 더욱 뚜렷이 새겨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기교를 통해 본 조선의 교예

박소윤

얼마전 본사기자는 날로 발전하는 조국의 교예에 대하여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국립교예단 연출가 박소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지였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국의 교예가 국내는 물론 국제교예무대에서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연출가: 교예는 기교의 예술입니다.

높은 기교형상을 떠나 훌륭한 교예작품에 대해 생각할수 없습니다.

관중은 무대에서 종전과 다른 새로운 경지에 이른 기교동작을 보고싶어합니다. 아무리 높은 기교도 도식과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관중의 기대를 허물게 되며 그것은 생명력을 잃은 작품과 같습니다.

조국의 교예가 국제교예무대들에서 인기를 끌고있는것도 작품이 새롭고 기교형상에서 난도가 높기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공중교예는 기교의 폭과 깊이에 있어 세계적수준을 돌파하고있습니다.

주체70(1981)년 제5차 프랑스국제교예축전에서 체력교예 《공중그네비행》이 금상을 받은것으로부터 첫선을 보인 우리 나라의 공중교예는 몽떼까를로국제교예축전과 중국오교국제교예축전을 비롯한 수많은 교예축전들에서 지금까지 패권을 놓지 않고있습니다.

기자: 대체로 어떤 작품들입니까?

연출가: 체력교예 《공중그네비행》, 《날아다니는 처녀들》, 《쌍그네비행》, 《다각전회비행》, 《비행가들》 등을 들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진행된 제12차 이젭스크국제교예축전에서 체력교예 《비행가들》은 또다시 금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지상에서 20m의 거리를 비행하여 공중 10m높이에 드리운 륜을 꿰고 웃단의 배우와 손을 맞잡는 유진성배우의 기교라든가, 같은 거리를 비행하여 눈가리우고 공중 10m높이에 도립선 배우를 날아넘는 조성남배우의 기교는 관중의 경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체86(1997)년 제22차 몽떼까를로국제교예축전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은 후로 이 작품은 지금까지 금상을 양보하지 않고있습니다.

체력교예 《다각전회비행》에서 뒤로 공중5회전동작은 우리 나라 처음으로 개척하고 보유한 기교입니다.

이 동작은 한호성배우가 주체101(2012)년 11월 체력교예 《정복자들》에서 공중4회전을 수행하여 기니스기록집에 오른 김명봉배우의 기록을 돌파한것입니다.

제16차 중국오교국제교예축전에서 축전최고상인 금사자상을 수여받았다. 주체106(2017)년

작품은 《이돌-2016》세계교예예술축전에서 금상을 수여받았습니다. 한호성배우의 기교동작을 본 관중은 《신비롭고 놀라운 기교》, 《흉내도 낼수 없는 교예기술》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제39차 몽떼까를로국제교예축전무대에서 금상을 받은 체력교예 《쌍그네비행》도 높은 기교로 하여 관중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축전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배우들의 출연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김명진배우가 수행한 앞으로 4회전하면서 14m날기는 세계적으로 누구도 수행하지 못한 기술로서 체육으로 말하면 세계신기록을 세운것이나 같다.》라고 감탄하였습니다.

기자: 지상교예종목도 세인의 평가를 받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예무대에서 우승한 작품들과 기교동작들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연출가: 공중교예 못지 않게 지상교예도 기교의 난도에 있어서 세계적수준입니다.

작품으로는 체력교예 《우주는 부른다》와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의 기상을 보여준 《날파람의 기상》, 《철봉과 그네날기》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조선민속놀이인 그네와 널뛰기를 교예화한 민족교예작품들입니다.

《이돌-2018》세계교예예술축전에서 2개의 금상을 받은 체력교예 《쇠줄타기》

널우에서 공중회전, 무동쌓기 등의 기교들이 계속 갱신되고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제8차 금코끼리상국제교예축전에서 또다시 금코끼리상을 수여받은 체력교예 《날파람의 기상》은 관중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배우들은 널뛰기를 리용하여 공중에서 뒤로 5회전돌기, 뒤로 2회전하면서 옆으로 6회전돌기 등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호상 교차속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체력교예 《우주는 부른다》를 비롯한 많은 교예작품들은 상상할수 없는 높은 기교로 국제무대에서 관중의 심금을 틀어잡고있습니다.

기자: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교예는 종전과 달리 제한된 무대에서만이 아닌 국제올림픽경기대회들과 각종 문화행사들의 개회와 폐막을 장식하는 대형교예로 발전하고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예의 발전실태는 어떠합니까?

연출가: 국내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서 교예가 차지하는 예술형상의 몫은 큽니다.

극장무대와는 달리 높이가 50m이고 너비가 150m인 리용공간폭을 가진 경기장에서 공중과 지상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기교는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기에는 충분합니다.

지난해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인민의 나라》제5장 《보검-자력갱생》에서 교예배우들은 공중조형과 오토바이강하비행, 공중비행 등의 공중교예와 원회전을 비롯한 지상교예로 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습니다.

특히 림정혁배우가 수행한 지상에서 공중으로 120m날기는 경기장을 관중의 환호로 채웠었습니다.

교예배우들은 국내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의 문화행사들에 초청되여 순회공연도 진행하는데 그 반향이 대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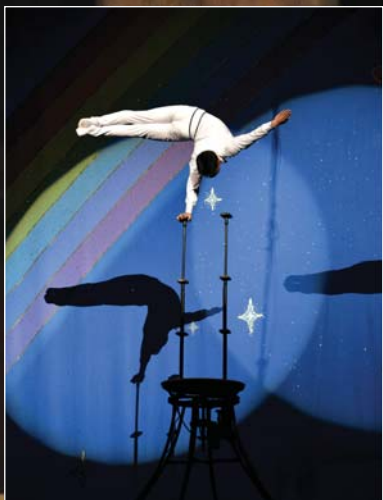
기자: 배우들이 훌륭한 기교를 소유할수 있은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출가: 교예무대에서 관중은 무엇에 먼저 끌리는가.

여기에 그에 대한 답이 있습

니다.

물론 훌륭한 기교형상도 볼만 하지만 보다는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해가는 배우들의 정신세계에 끌리게 됩니다.

아무리 착상이 새로운 작품이라 해도 배우들의 기교가 따라서지 못한다면 작품의 성공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50여년간 창작활동과정에 느낀 점입니다.

항상 아슬아슬한 위험을 동반하는 예리한 교예적장애속에서 그것도 누구도 해보지 못한 상상밖의 기교를 익힌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기질과 예술적소질만 가지고서는 할수 없는것이 교예입니다.

강한 정신력을 소유했을 때 난도높은 동작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것입니다.

지난해 금코끼리상을 받은 체력교예 《날파람의 기상》에서 몸펴고 뒤로 두바퀴돌면서 옆으로 6바퀴돌기를 수행한 최철웅은 더 높은 난도동작수행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작품을 창작하기에 앞서 나는 그에게 할수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는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우승의 전통을 우리는 계속 빛내여 갈것이다.》라고 웃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최철웅배우의 심정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예배우들이 바로 이런 정신으로 오늘까지 우승을 이어가고있습니다.

하기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교예를 보고는 하나같이 《조선사람들은 용감하고 강인하며 한다면 꼭 해낸다. 조선의 국립교예단공연은 우리의 넋을 빼앗아갔다.》, 《교예는 조선사람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훌륭히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김리정
사진 본사기자 김 평

245개의 메달을 받은 박명원

사격훈련을 하고있는 박명원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는 고향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된다고 당부하였다. 그때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20년간 훈련장에 울리는 총소리와 함께 언제한번 내 귀전에서 떠난적이 없다.》

이것은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제14차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사격선수인 박명원이 한 말이다.

20년간에 걸치는 선수생활기간 명원선수는 많은 국제, 국내경기들에서 금메달 145개를 포함하여 도합 24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공훈체육인인 그는 올해까지 4번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명원은 원래 자신이 사격선수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중학교때 학과목의 성적이 좋았고 특히 수학, 물리과목에서 두각을 보인것으로 하여 교원들과 동무들, 부모들은 그가 과학연구부문에서 성공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선수선발을 위해 평안남도 순천시의 부산중학교(당시)를 찾았던 리승일감독의 시야에 명원이 안겨들었다. 선수선발에서 직업적인 감각으로 리승일감독은 명원에게서 사격선수로서의 적성체질을 보았던것이다.

감독의 끈질긴 설득에 명원의 어머니와 학교는 자기의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을수 없었다.

제14차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박명원(웃줄 왼쪽에서 두번째)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체육단에 가서도 언제나 고향사람들의 기대를 꼭 명심하거라.》

이렇게 되여 명원은 체육단으로 떠났다.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 명원은 단순히 총을 쏴본다는 호기심으로 사격에 재미를 붙였다.

그러나 점점 높아지는 감독의 요구성과 훈련강도는 명원으로 하여금 정신육체적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하였다.

그러는 그에게 리승일감독은 《총쏘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 그러나 조국의 영예를 걸머쥔 사격선수는 오직 명중, 이 하나만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자신을 이겨내야 한다. 고향사람들이 너를 지켜본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감독의 말에서 명원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금 무겁게 새겨안았다.

명원은 감독이 세운 훈련계획을 이악하게 집행해나갔다.

사격은 다른 체육종목과 달리 고도의 심리적안정을 요구하는 종목이다.

선수가 어떤 정황에서도 정확하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심리조정, 관리는 리승일감독의 재기이다.

감독은 훈련때면 명원의 심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몸상태 등 모든 세부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등 선수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사격표리와 감각을 바로 찾도록 해주었고 경기담을 키워주었다.

이 과정에 명원은 안정된 무기유지와 정확한 조준, 빠른 사격속도를 남보다 먼저, 명확히 소유할수 있었다.

평시에 훈련에서 많은 땀을 흘린 명원은 국제, 국내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함으로써 사격계에서 무시할수 없는 명사수로 인정받게 되였다.

사격협회 서기장은 《박명원선수의 경기과정을 보면 어떤 정황에서도 안정된 심리를 잘 유지하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감독이 된 오늘 그는 선수시절의 그 열정으로 선수들을 가르치고있다.

세계적인 사격선수들을 키워 조국의 영예를 계속 떨쳐가려는것은 그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림철명

상식

록 두 지 짐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지짐을 즐겨먹었다.

여러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지짐들가운데서 가장 맛좋은것으로 이름난것은 록두지짐이다.

흔히 여러 지방에서는 록두에 배추를 비롯한 남새를 넣고 돼지고기를 버무려 지져 색과 맛을 돋구었다.

특히 평안도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지짐가운데 박는것을 좋아하였다.

이 지짐은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독특한 맛을 내는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였다.

남쪽지방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에 록두지짐을 빼놓지 않았다고 한다.

민족적특색이 짙은 록두지짐은 결혼식과 같은 대사들에서 큰상에 놓였다. 평안도지방에서는 록두지짐을 놓지 않은 잔치상은 잘 차린 상으로 일러주지 않았다.

록두지짐은 영양가도 높아 건강식품으로 알려졌다.

록두는 리뇨작용과 염증해소, 해독작용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시력을 높이는데서 효능이 높다.

*　　*　　*

우리의 생활

한 모 습

지난 6월초 정준택원산경제대학 교정에서였다.

대학속보판에 나붙은 《아름다운 소행》이라는 글발이 우리의 눈가에 안겨들었다. 비오는 어느날 밤 한 대학생이 부모와 헤여져 길을 잃은 한 어린이를 등에 업고 교외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 30여리길을 오간 내용이였다.

지원물자를 마련하고있는 황중일가정

그 주인공은 이 대학의 대외경제학부 4학년 학생인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황중일이였다.

알고보니 지난 기간 스승과 동무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한 그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형제들(황국일, 황장일) 역시 가정에서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고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을 찾아가 건설자들을 고무해주고있었다.

우리가 만난 황중일의 어머니 정명선은 이렇게 말하였다.

《자식은 겉을 낳지 속을 낳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걸어온 길을 이어 세 아들 모두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를 바칠줄 아는 인격자로, 한 모습으로 자라난다면 나는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사회를 위해, 불러볼수록 소중한 이 마음이 새 세대들인 황중일형제의 가슴속에서 꽃펴나고있었다.

우리는 휴식일을 계기로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장에 보내기 위해 지원물자를 마련하는 이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한 마 음

최우등한 나의 볼 다독여주며
우리 엄만 이담 크면
큰사람되래요

나는나는 알아요 정말 큰사람
나라위해 큰일하는 사람인줄을

이것은 원산외국어학원 초급반 1학년에서 공부하는 김지예학생이 두해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기쁨을 드린 글작품집 《내 고향 무지개》의 한 시구절이다.

아직은 애국의 뜻을 다 알기에는 너무도 어린 12살의 소녀이다.

하지만 키보다 마음이 먼저 자라는듯 지예는 정말 《큰사람》이 되기 위해 7살때부터 하루공부가 끝나면 어김없이 자기의 《일감》에 열성을 기울였다. 그 일거리의 하나가 꽃과 나무를 가꾸는것이였다. 지난 5월말 우리가 본 지예의 모습도 강원도 원산시에 위치한 원석혁명사적지주변의 어린 소나무를 정성껏 가꾸는것이였다.

일요일이면 할머니와 함께 자기가 나무모를 심은 여러 장소들을 다니며 물도 주고 제법 가지접도 해준다는 나어린 지예이다.

지난 5년간 해마다 방학이면 부모의 손목을 잡고 평양에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수목원을 찾아가 자기 집 터밭에서 가꾼

부모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있는 김지예

은방울꽃과 백도라지를 심군 하였다는 지예, 그렇게 심은 꽃이 지금까지 2 210여그루나 된다는 소녀이고보면 그 작은 가슴속에는 벌써 조국애라는 하나의 마음이 굳게 자리잡은듯싶다.

김지예학생은 말하였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사랑하는데서부터 표현된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영웅도 시인도 될수 없답니다.》

한 식 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주체102(2013)년 10월 13일 당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해상합동군사연습에 대처하여 군사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어느 한 군부대 구잠함 233호 군인들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지난 5월 어느 일요일 원산시 방하산동 71인민반 마을을 지날 때였다.

봄남새가 푸르게 펼쳐진 한 터밭에서 어머니와 《딸》사이에 오가는 정이 너무도 다감하여 우리는 인츰 렌즈에 포착하고 그들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윽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땀을 흘리며 밭일을 하던 처녀가 친딸이 아니라 조군실원산공업대학 기계공학부 5학년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최춘경이라는 것이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7년전 10월 제대명령을 받고 며칠후면 집에 온다던 아들(김금성)이 글쎄 바다에서 희생되였다는 소식이 오지 않겠습니까. …

이 사실을 안 이웃들과 직장에 함께 다니던 사람들, 춘경이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나의 식구가 되여주었습니다.

춘경이가 이따금 아들이 사랑하던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불러줄 때면 나라위해 한몸바친 장한 아들의 모습이 어려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정과 넋을 이어주는 춘경이의 모습이 정말 돋보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홍정혁
주체108(2019)년 촬영

애국렬사의 가정을 찾은 최춘경(가운데)

박천사람들의 마음

박천견직공장에서

동포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취재길은 평안북도 박천군에로 이어졌다.

박천군은 일본의 가나가와현에 있는 김청자동포의 동생인 김영구로인이 살고있는 고장이기도 하다.

박천땅에 도착한 우리를 군의 일군인 리철남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중년인 그는 자기 고장에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였다.

《오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박천은 고려시기에 넓은 벌이 있다는 뜻에서 <박릉>으로 불리웠습니다.

그후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박릉군>의 <박>자와 청천강과 대령강을 끼고있는 고장이라는데로부터 <천>자를 붙여 박천으로 고쳐불리웠습니다.

박천군에는 고려시기에 3절의 하나로 일러온 심원사와 성토유적인 박릉성등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박천은 누에고치가 잘되였고 이로부터 견직수공업이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천발전에도 영향을 주어 박천은 녕변과 함께 사람들속에서 비단천이 유명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곳 상점에는 특별히 비단천제품들이 많이 진렬되여있었다.

우리는 시집가는 딸에게 지어보낼 비단이불과 옷감을 마련하려고 왔다는 박천군 읍 151인민반의 김시갑내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고장 비단이 제일이지요. 가볍고 빛갈이 우아하면서도 손맛이 부드럽기 그지없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은것이 이 고장 비단이라오.》

그러면서 그는 비단에 대해서 더 잘 알자면 그것을 만드는 박천견직공장에 가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박천견직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공장정문에서 우리는 생산된 제품들을 실은 자동차를 떠나보내는 지배인 김영남을 만났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은 7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었다. 해방후 은방단, 호박단, 해방단생산으로 첫선을 보인 공장이 오늘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고 다양한 종류의 비단천들과 각종 견직물들을 생산하는 기지로 발전하였다.

1직포직장에서는 다색단, 크레브, 인견양단을 비롯한 문양고운 비단천들이 생산되고있었다.

우리에게 지배인은 직장의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녀성들이지만 한다하는 기능공들이라고 하면서 그 비결은 직장종업원들의 과학기술학습열의가 높은데 있다고 하였다.

직장에서는 최근에만도 여러건의 창의고안과 새 기술을 생산에 도입하여 제품들의 질을 훨씬 높이였다.

비로도직장과 담요직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들에서도 다를바없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문양곱고 질좋은 비로도를 생산하고있다는 비로도직장장의 말에서, 아닐론대신 데트론을 리용한 담요생산공정을 확립하여 많은 원가를 절약하고있다는 담요직장장의 이야기에서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이곳 생산자들의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아담하게 꾸려진 박천군량정사업소와 지방의 특성에 맞게 조선식합각지붕을 얹은 국수집, 편의봉사시설들이 갖추어진 비단원과 과학기술보급기지로 꾸려진 미래원에서도 인민을 위한 종업원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을 지닌 이 고장사람들은 모든것을 변모시키고있었다.

박천읍의 일부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소원을 성취한 교원

박정양

주체85(1996)년 김만유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로 일하던 박정양이 평양의학대학 교원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했다.

지금껏 최중증환자들을 도맡아 치료하면서 환자들과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그가 훌쩍 떠나겠다는데 대해 리해할수 없었던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만류하니 나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을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내린 결심은 순간의 충동이 아니였습니다. 각이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높은 의술을 소유하려면 대학 박사원에 가서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때없이 들군 하던 나였습니다. 그래 대학에 갈 결심을 굳히였던것입니다.》

기자와 평양의학대학 림상제1의학부 부교수 박정양과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대학에 배치된 첫날부터 그는 열성독학가가 되였다.

밤을 새워가며 영어, 로어, 일본어 등 외국어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의학도서들도 탐독하였다.

교원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대학 박사원에 입학하여 견문을 넓히고 배운것을 공고히 해나갔다.

강의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온 그는 학생들을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교수준비에 품을 들이군 하였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자기 강의에 대한 평가를 받군 하였으며 그들의 질문을 소홀히 대하지 않은 그였다. 언제인가 체육의학부의 한 학생이 강의시간에 엉뚱한 물음을 하였다.

모란봉에서 가족과 함께 주체108(2019)년 촬영

대답은 주었으나 어딘가 석연하지 않은것 같은 생각이 든 그는 다음날 물음과 관련한 도서들을 찾아 학생이 더 잘 리해할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비록 사소한것이라 해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그의 태도는 학생들을 감동시켰다. 학생들은 언제나 참신한 그의 강의를 기다렸고 자기의 의문점들을 스스럼없이 제기하군 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대학의 전염병학강좌 강좌장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전공과는 비록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주저없이 새 과학분야를 파고들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직한 강습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갔을 때에도 그는 전염병학과 관련한 도서들을 구입하였으며 그것을 강좌의 많은 교원들이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강좌의 교원들이 가치있는 론문들을 집필하도록 착상도 틔워주며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다.

그의 꾸준한 노력으로 강좌는 대학적으로 실력있는 강좌로 되였다.

그는 《전염병학참고서》, 《현대간장병학》, 《에볼라비루스감염증》, 《지카비루스감염증》을 비롯한 많은 교과서와 도서들을 집필하였으며 학생들을 최우등생, 학위소유자들로 키워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홍안의 시절 일본에서 조국으로 올 때 내 소원은 의학공부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조국에서 그것을 성취하였습니다. 정말이지 고마운 조국에 의학과학성과들과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 보답하고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생의 자욱을 남기겠습니다.》라고 박정양교원은 기자에게 곱씹었다.

이것은 그가 두 아들에게도 입버릇처럼 늘 외우는 말이기도 하였다.

현재 일본에는 그의 어머니와 녀동생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대학교원으로 성장한 그가 보고싶어 조국방문의 길에 자주 오르고있다.

이제는 년로하여 강좌장사업도 후배에게 넘겨준 그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재집필을 비롯한 일들을 찾아하며 삶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상식

고혈압과 건강에 좋은 죽

- 홍당무우죽

적당한 량의 홍당무우를 썰어서 쌀 250g과 함께 죽을 쑨다.

- 련꽃잎죽

신선한 련꽃잎 하나를 깨끗이 씻어 달인 다음 사탕가루를 적당히 넣고 쌀 100g과 함께 죽을 쑨다.

- 미나리죽

미나리를 뿌리채로 120g을 다듬어 잘게 썬 후 쌀 100g과 함께 죽을 쑨다.

- 마늘죽

껍질을 벗긴 마늘 30g을 물에 넣어 1분간 끓이다가 건져내여 그 물에 쌀 100g을 넣고 죽을 쑨다.

- 콩물죽

콩물을 적당하게 넣고 거기에 쌀 100g을 두고 죽을 쑨 후 사탕을 넣어 1분간 끓인다.

- 국화죽

가을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국화를 채취하여 꼭지를 떼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워 가루낸다.

쌀 50~100g으로 죽을 쑤다가 죽이 거의 되였을 때 국화꽃가루 10~15g을 넣고 끓인다.

비위가 약한 로인들은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쑨 죽들을 더울 때 아침저녁으로 먹는것이 좋다.

* * *

오스트랄리아 시드니주 한승수삼촌 앞

보고싶은 삼촌에게 전합니다

삼촌,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제가 평양에서 삼촌을 만나본지도 어제런듯싶은데 벌써 여러해가 지났습니다. 그러고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흐르는것이 세월이고 더 깊어지는것이 혈육의 정인가 봅니다.

년로한 삼촌과 사촌오빠, 언니들도 다 잘 있으리라고 봅니다.

희천에 있는 저와 둘째언니, 평양에 있는 맏언니도 다 잘 있습니다.

삼촌, 특히 희천고려약공장 지배인을 하는 둘째언니가 맡은 사업에서 여전히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생산공정들에 대한 GMP화를 실현하여 고려약의 질을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한 언니는 요즘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이악하게 노력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 도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고마움과 인민들의 신임에 보답하기 위한 활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평양의 칠골민속관 관장사업을 하던 맏언니도 비록 년로보장을 받았지만 자기의 뒤를 이은 맏딸 향춘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있습니다.

대끝에서 대가 난다고 언니가 지난 시기 봉사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것처럼 향춘이도 언니 못지 않게 사업을 전개해나가고있습니다.

삼촌, 저의 맏딸인 효심이는 학생시절에 공부를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 평양건축대학에 갈수 있었지만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자원입대하여 정신육체적으로 성장하여가고있습니다. 지휘관들은 효심이가 일도 잘할뿐아니라 직관선전물들도 손색없이 잘 그린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승원천사업소에서 일하는 일심이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있습니다.

자식들이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때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식교양도 더 잘하고 인민반을 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에도 적극 참가하고있습니다.

삼촌, 제가 우리 가정이야기만 늘어놓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촌도 조국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하신데 대해 우리는 늘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러했지만 삼촌이 앞으로도 조국의 부강을 위한 일에 헌신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보고싶은 삼촌의 건강을 기원하며, 상봉의 그날을 기대하며 이만 펜을 놓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강도 희천시 청천동
47인민반 한영실 올림

백두산을 우러르라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방일각에 백두성악마냥 우뚝 솟아 그 자태를 눈부시게 드러내며 세상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나라에는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고 적대세력들에게는 무서운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이북.

세월의 풍상에도 끄떡없이 그 위용을 도도히 하며 경이적인 사변으로 세계를 놀래우고 대충격에 휩싸이게 하는 북의 현실은 그야말로 행성의 수수께끼가 아닐수 없다.

동서방의 제노라 하는 언론들이 앞을 다투어 신비한 이북으로 달려가고 북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있는 오늘 나는 그 메아리에 진폭을 더해가며 불멸의 진리를 전하고싶은 충동을 누를수 없어 붓을 든다.

북을 알려면 백두산을 우러르라.

*　　*

몸은 멀리 이역에 있어도 전파를 타고 끝없이 전해지는 이북소식은 들을수록 흥분과 매혹을 불러일으킨다.

…

경애하는 **김정은**령수님께서는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는 계속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을 백두산답사길에 끝없이 세워주신다.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이북땅 그 어디서나 시대의 진군가로 울려퍼지는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이 구절에는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사는 그곳 민중의 심정이 그대로 비껴있다.

세계적으로 명산도 많고 나라마다 신성시하는 산들이 적지 않지만 마음의 고향으로까지 불리워진 전례는 없는줄로 안다.

고향은 삶의 출발점이다. 사람은 태여난 고장을 닮는다는 말도 있지만 삶의 근본을 새겨주고 인격형성의 초석을 마련해준 고향을 잊지 못해하고 항상 마음 달려가는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수 있다.

이북의 군민이 그렇듯 정깊은 그리움의 대명사로 백두산을 우러르며 찾고 또 찾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일가.

백두산은 대대손손 우리 민족의 숭배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우리 선조들은 백두산을 민족의 얼이 깃든 조종의 산으로 우러르며 백두산과 더불어 존엄을 떨치고 슬기를 빛내여왔다.

북에 살든 남에 살든 해외에 살든 백두산 그 이름만 들으면 마음 숭엄해지고 옷깃 여며지는것이 우리 백의민족모두의 공통된 심정이다. 그러나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우러르는 북녘민중의 심정에는 이런 력사적숭배의식을 초월한 숭고한 사상감정이 높뛰고있다.

나는 …이북에서 백두산답사길에 합류하여 백두산에도 올라보고 성스러운 전적지들을 밟아보면서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안고사는 북녘사람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의 참뜻을 체험할수 있었다.

답사성원들 누구나 풀물오른 군복차림으로 붉은기를 휘날리며 철의 흐름인양 보무당당히 굽이치는 장쾌한 모습은 백두산지구에서만 볼수 있는 이채로운 광경이였다. 부르는 노래가 류달리 기백과 랑만에 넘치여 무슨 노래인가고 물어보면 항일선렬들이 부르던 혁명가요라고 했다. 들을수록 힘과 열정이 용솟음쳐 저도모르게 따라부르게 되는 노래들이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탁류에 부대끼며 이끼꼈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신비한 힘이 백두산에 있었다.

이른새벽 초당 수십m의 칼바람이 울부짖고 천하를 뒤흔드는 장군봉에 올라 백두산해돋이를 마중하며 만세를 부를 때의 심정에 휩싸여보라.

그 장군봉에서 아득히 흘러간 천리수해를 바

라보며 전설처럼 들어온 **김일성**항일빨찌산이야기를 다시 들을 때면 존엄과 영광의 최절정에서 빛나는 이북의 력사를 안아온 그 위대하고 고귀한 헌신의 세계에 마냥 가슴은 부풀어오른다.

한두해도 아닌 20성상을 하루와 같이 찰거마리처럼 달려드는 일제강도배들과 혈전을 벌리고 눈보라와 굶주림, 병마와 싸우며 고군분투해야 했으니 그 간고성과 엄혹성을 무엇으로 다 새겨볼수 있으랴.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백두밀림은 오늘도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감으로 온넋을 불태우며 만난시련을 타개해나가던 항일무장투쟁의 만단사연을 길이 전하고있다.

귀기울이면 허리치는 눈길속을 비호같이 달리며 원쑤를 치던 유격대의 돌격의 함성, 만주광야에 눈갈기를 날리며 달리던 빨찌산군마들의 호기찬 말발굽소리가 들려올듯싶은 백두산, 바로 이곳에서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나가는 항일투사들의 필승의 신념이 나래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 백두의 정신이 창조되였다.

이북에서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백두산답사의 길에서 장백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을 새겨오신 **김일성**주석님의 만고풍상의 력사를 온넋으로 체득하고있으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불굴의 기개로 싸워온 투사들의 고결한 정신에서 폭풍에도 굽힘없는 신념과 의지를 벼리고있다.

항일대전의 간고한 시련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숭고한 자각,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를 쓰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 한다는 성스러운 사명감, 인민의 운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으로 심장을 끓이며 불사신처럼 일어서군 하시였다는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글줄에 높뛰는 숭고한 뜻도 다시 읽고 이런 행군의 력사를 유산으로 가지고있는 인민은 어떤 힘으로써도 정복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빨찌산 김대장께서 뜨겁게 추억하신 고난의 행군의 민족사적의의를 온넋으로 절감한다.

우등불을 피우고 《사향가》의 노래를 부르며 투사들이 지녔던 조국애의 세계도 체험하고 항일의 옛 병기창들에서 단쇠를 두드리는 함마소리, 연길폭탄에 떼죽음을 당하던 왜놈들의 비명소리도 다시 들으며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새겨안고있다.

백두산에 오르면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엄혹한 환경을 과감히 이겨내며 행성에서 유일하게 붉은기를 휘날리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여온 북의 위대한 힘의 원천을 알게 된다.

봉은 봉마다, 골은 골마다 **김일성**주석님의 항일영웅사를 전하는 백두산, 이 성스러운 령봉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것은 백두산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북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준 특기할 사변이였다.

항일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빨찌산의 아들로 성장하신 장군님이시여서 백두산이 안고있는 숭고한 정신적높이와 무게를 누구보다 뜨겁게 새겨안으신것 아니랴.

언제인가 장군님께서는 굳이 눈보라가 울부짖는 날을 택하시여 백두산에 오르신적이 있었다고 한다.

동행하던 일군들이 날씨가 좋은 때에 백두산에 올라가실것을 간청드리자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왜 이런 날에 백두산에 오르려고 하는지 아는가고,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떤 간고한 시련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마음속으로나마 더 깊이 체득해보기 위해서라고 하시며 백두의 눈보라를 앞장에서 헤치시였다고 한다.

만난을 뚫고나가는 투지,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기개와 열정, 인민을 투쟁에 살도록 이끌어주는 고귀한 정신적량식이 다름아닌 백두산에 있기에 그이께서 그토록 백두산을 사랑하시며 찾고 또 찾으신것이리라.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백두의 정신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백두산처럼 높이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다음호에 계속)

재미동포 홍영식

력사를 왜 계속 외곡하려드는가

일본의 력사외곡움직임이 더욱 도수를 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독도관련자료를 비롯한 저들의 령토야욕을 정당화하는 자료들이 보관된 《령토주권전시관》을 도꾜의 한복판에 이전의 7배나 되게 확장개건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전시관개관후 일본의 한 고위관리는 《전시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령유권에 관한)력사적인 흐름, 법적인 흐름을 명확히 하고있고 다께시마는 원래 일본의 령토라는것을 정중히 설명하고있다.》고 하면서 《불만이 있는 나라들은 와서 충분히 보기 바란다.》는 수작까지 늘어놓았다.

이자가 말한 전시내용들 그 어느것이나 외곡되고 과장되지 않은것이 없다.

《다께시마구역》의 바다사자박제품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박제품에는 1930년경 독도주변수역에서 서식하던 바다사자로 설명되여있는데 더우기 웃기는것은 일본인들이 에도막부시대 초기인 1600년대초부터 그 수역에서 바다사자사냥을 해왔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독도는 일본땅이 분명하다고 우겨대고있다는것이다. 먼 옛날부터 남의 땅에 기여들어 로략질과 자원강탈을 일삼아온 자료까지 리용하며 광증을 부리는 꼴이 참으로 세살 난 아이의 생억지가 아닐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일본문부과학성은 독도강탈야망을 로골화하고 력사를 심히 외곡한 교과서들을 검정통과시켰다.

2021년도부터 일본전역의 중학교들에서 리용할 대부분의 교과서들에 독도가 《일본령토》로 서술되고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범죄,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죄행이 삭제되거나 외곡되였다.

일본당국의 력사외곡책동은 오늘날 단순히 량적으로 증가할뿐만아니라 내용에서 외곡의 도수가 절정에 오르고있는것이 현실태이다.

교과서서술에서 당국은 저들의 파렴치한 령토야욕을 정당화하는 지면을 늘이는 동시에 자국의 침략력사와 성노예문제 등 전쟁범죄를 취급한 부분은 전면외곡,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 약화시켰다. 이런 교재를 통해 배우고 자라난 일본의 젊은 세대의 세계관, 정신상태가 어떠할것인가는 불보듯 명백하다.

력사는 그자체가 산 증거이며 진실이다.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것도,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독도령유권을 확인하고 내외에 제일먼저 선포한것도 바로 조선민족이다.

이에 대하여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이를 립증할수 있는 력사적사실자료들과 법률적근거들은 차고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생떼를 쓰는 일본당국이야말로 후안무치한들이라고밖에는 볼수 없다.

하다면 일본이 과거죄악의 력사를 통절하게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력사외곡에 한사코 매여달리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일본이 아직도 침략의 망령에서 헤여나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통속적으로 말한다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일본의 굳어진 악습이 안아온 행태라 해야 할것이다.

일본은 원래 남을 침략하면서 살쪄온 나라이다. 침략야욕이 골수에까지 찬 강도적인 습성이 대대로 일본의 본성으로 굳어져버렸다.

그런데야 한사코 력사를 외곡하여 침략의 구실을 찾아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일본의 《버릇》이 달리될수 있겠는가.

일본은 그 악습때문에 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경

략탈은 서화작품들에도

일제가 파괴략탈한 문화재들 가운데는 조선인민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며 창조한 서화작품들도 적지 않다.

일제의 조선서화파괴략탈만행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가장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것이다.

일제는 조선민족의 넋을 말살할 목적밑에 단군릉을 파헤치고 단군릉벽화에 그려져있던 선인상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동양의 최고걸작품인 고구려벽화에 대한 파괴를 통해서도 일제의 악랄성을 잘 알수 있다.

20세기 초엽에 발견된 고구려벽화무덤들은 일제에 의해 강탈당하는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쌍기둥무덤에 침입한 날도적들은 무덤안길 량옆에 그려진 화려한 미인도와 무용도를 벽체채로 뜯어낸 다음 흔적을 감추기 위해 그 자리를 세멘트로 매질해놓았다.

강서세무덤의 인동넝쿨무늬를 뜯어내고는 석고를 바른 다음 그우에 다른 무늬를 그려놓아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또한 법륭사금당벽화와 같은 벽화들의 보존기술을 《연구》한다는 미명하에 고구려벽화에 손을 대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한개의 고구려벽화를 선택하여 물이나 시약을 뿌려 그 침투성을 시험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관권과 군권을 총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우수한 고려회화유산들을 닥치는대로 파괴략탈하였다.

일제의 파렴치성은 1903년 2월에 《고고계》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우리 나라의 어느 한 절에 있던 불교그림을 요란스럽게 소개한것을 통해서도 더욱 날날이 드러났다. 거기에는 이 그림이 그려진 시대가 수백년전으로 추정되며 색이 선명하고 기법이 뛰여나 한눈에 보기에도 가치가 있는 불교미술작품이라고 하면서 그림이 너무 진귀해서 일본의 도꾜제실박물관에 전시한다는 기사가 실려있었다.

작품에 대한 소개기사에는 그림의 입수경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뿐이 아니다. 강도적본성이 체질화된 략탈자들은 앞을 다투어 미술작품들을 훔쳐갔으며 그것을 도꾜은행을 비롯한 여러곳에 걸어놓거나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어버렸다.

군사적강점기간 고려시기의 불교그림인 《11면관음상》을 손에 넣은 도꾜 히하라가문의 오오까라는자는 이 그림이 《묘사가 정교하고 색채가 아름다운것은 놀랄만 한것이다. 조선회화의 특징인 풍만함속에 쾌활한 기상을 나타내고있으며 모든 기술적기교를 발휘하고있는 비범한 대작》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가보로 된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일제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회화작품들에도 검은 마수를 뻗치고 수많이 략탈해갔다.

다까기라는 일본인은 《조선의 고미술》에서 《총독부박물관이 소장한 작품도 적지 않다. 민간(일본인)에 산재하는 작품을 모아놓으면 상당한 수에 달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한 일본인은 조선의 미술작품이 일본에 더 많아지게 된 주요원인이 계속되는 전란때문이라고 실토하였다.

이렇듯 일제의 날강도적이며 무자비한 략탈책동으로 하여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수많은 서화작품들이 조선에서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침략적, 략탈적만행의 진실을 감추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온갖 궤변을 다 늘어놓고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조선민족의 넋과 재부를 말살하기 위한 일본의 과거죄악은 절대로 숨길수 없으며 력사의 진실을 가리우기 위해 발악할수록 저들의 도덕적저렬성만 만천하에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이게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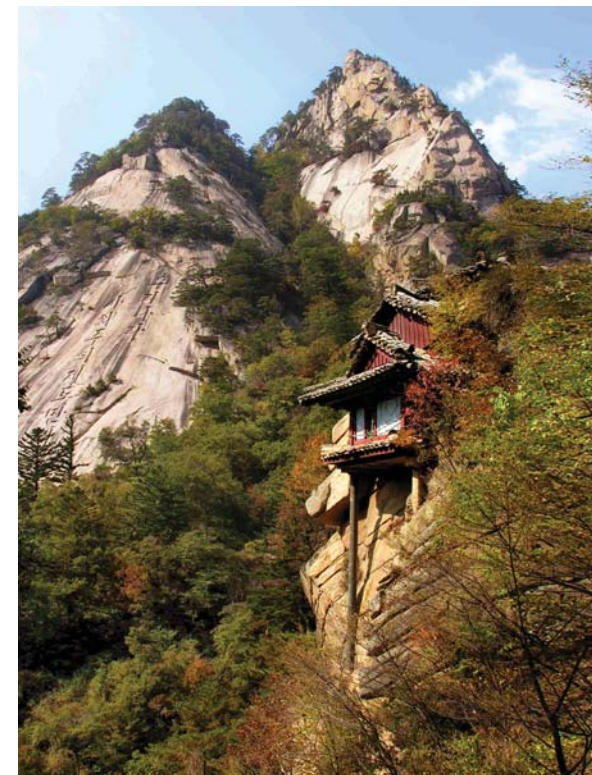
본사기자 러 해

강원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4)

- 보덕암 -

보덕암은 강원도 금강군 내금강리의 만폭동에 있는 암자이다.

보덕암은 고구려때에 처음 세워진것으로 전해지고있으며 현재의것은 1675년에 다시 세운것이다.

만폭동의 분설담 오른쪽 천길벼랑에 매달리듯 서있는 보덕암의 모습은 참으로 기묘하기 그지없다. 벼랑밖으로 아슬아슬하게 내민 건물을 한대의 구리기둥으로 떠받들게 한 기발한 기교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할수 없게 한다.

보덕암은 원래 두채의 건물이였는데 하나는 보덕굴앞을 막아 벼랑벽에 달아 지은 본전이고 다른 하나는 굴우에 지었던 판도방이다.

보덕암의 본전은 보덕굴앞 바위에 의지하면서 높이 20m가 넘는 절벽의 중간에 구리기둥 하나로 받쳐 세운 단칸집이다. 판도방은 보덕암 바위우의 평평한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덕굴로 내려가는 층대가 남아있을뿐이다.

보덕암은 자연동굴인 보덕굴과 잇닿아있다.

보덕굴이란 옛날 여기에서 마음씨 착한 보덕각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후에 보덕굴에 암자를 짓고 그안에 옥으로 보덕각시를 형상한 조각상을 놓았다.

이외에도 보덕굴의 벼랑아래에 있는 만폭동 개울가의 바위에는 보덕각시가 머리를 감았다는 세두분이라는 동그란 샘구멍이 있고 여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보덕각시가 세수를 할 때 수건을 걸어놓군 하였다는 수건바위가 있다.

보덕암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문화유산으로서 현재 국보로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본사기자

상 식

건강에 좋은 호박

호박에는 많은 량의 펙틴이 들어있다. 펙틴과 전분류의 음식물을 섞어먹으면 위내용물의 점도를 높여주고 음식물의 소화속도를 조절하여준다. 펙틴은 또한 체내의 콜레스테롤함량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호박은 위안에서의 음식물의 배출을 느리게 하고 식사후 혈당의 상승을 조절한다. 따라서 당뇨병환자들이 호박을 많이 먹으면 증세를 호전시킬수 있다.

위궤양환자들은 호박과 흰쌀로 끓인 호박죽을 자주 먹으면 치료에 좋다.

호박에 포함되여있는 호박즙은 신장과 방광에 생긴 돌을 제거하며 전위선과 간장에 온 염증치료에 효과적이다.

호박을 말리워 가루로 만들어 쓰면 식용 및 약용가치가 더 높아진다.

*　*　*

향목리동굴유적

지난 5월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에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이 차례로 겹놓인 원시동굴유적이 새로 발굴되였다.

동굴은 길이 5m, 너비 2.7m, 높이 1.5m이며 7개의 문화층으로 구분되였다.

구석기시대 문화층(4층, 5층)에서 포유동물화석(짐승뼈화석) 9종에 1 650여점과 석기 8종에 16점, 포분화석 280여개, 신석기시대 문화층(6층)에서 조선옛류형사람의 이발 5개와 질그릇쪼각 40점, 청동기시대 문화층(7층)에서 질그릇쪼각 10여점이 발견되였다.

구석기시대 문화층의 유물들은 형성년대가 3만 6 000~3만 4 000년전인 구석기시대 후기의것으로 확증되였다.

또한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 발굴한 조선옛류형사람의 이발은 신석기시대의 50대 녀성의것이고 신석기시대 문화층과 청동기시대 문화층에서 나온 질그릇쪼각들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물이라는것이 밝혀졌다.

이로써 평양시 강동군에 있는 단군릉일대가 인류력사의 려명기부터 조선사람들이 태를 묻고 살아온 유구한 곳이며 현대조선사람의 력사적뿌리가 내린 지역의 하나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와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는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동굴유적을 국보유적으로 등록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리정
사진 조선중앙통신

발굴된 유물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있는 고고학자들

발굴된 유적들의 일부

① 구석기시대의 석기들
② 구석기시대의 포유동물화석들
③ 신석기시대의 질그릇쪼각들
④ 청동기시대의 팽이그릇쪼각들

조 선 기 와

산과 들의 푸르름이 한껏 기상을 떨치는 지난 6월의 어느날 우리는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남리부락을 찾았습니다.

갖가지 과일나무들과 그속에 들어앉은 살림집들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채를 띤것은 조선기와를 얹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미를 가진 조선식지붕이였습니다.

그럼 이번호에서는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진 전통적인 지붕재료인 조선기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조선기와는 고조선때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삼국시기에는 기와생산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부서들까지 있었고 이름난 기와생산기술자들이 일본에 초빙되여가서 기술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많은 고분들에서 옛 기와들이 발굴되였는데 제일 오래된것은 B.C. 1세기경의것입니다.

조선기와는 만든 재질에 따라 진흙기와(또는 토기기와), 오지기와, 나무기와(또는 동기와) 등으로 나눕니다.

먼 옛날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북부지대에서는 잘 썩지 않는 이깔나무, 참나무 등으로 길이가 30～40㎝, 너비는 15～20㎝, 두께는 2～2.5㎝되게 기와를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조선기와는 형태와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종류를 크게 보면 암기와와 수기와가 있습니다. 암기와는 지붕의 기본바닥을 덮는 골(고랑)이 되고 수기와는 암기와들의 이음새에 덮어놓는 마루(이랑)가 되여 비물과 눈녹은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게 합니다.

조선기와에는 이밖에 바닥기와, 곱새기와, 룡마루(지붕경사면의 웃마루)기와, 추녀기와, 눈섭기와, 처마기와 등이 있습니다.

조선기와는 색갈도 여러가지입니다.

원료의 종류와 그것을 굽는 온도에 따라 붉은색 또는 검은색을 띱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와겉면에 풀색, 누런색 등의 칠물을 발라 방수기능을 더욱 높이면서도 다양한 색갈의 기와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름난것이 푸른색을 띤 청기와입니다.

선조들은 기와 한장에도 깊은 의미를 담아 온갖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실례로 건강과 장수를 바라며 막새기와에 련꽃이나 룡과 같은 그림을, 《목숨 수》나 《기쁠 희》와 같은 글을 새겨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붕룡마루의 량쪽 모서리에 룡이나 수리개의 꼬리를 형상한 치미(조각장식물)를 세우고 각 마루끝에 도깨비얼굴을 형상한 기와를 얹어 지붕의 곡선미와 경쾌감, 조형미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든 새 기와들을 집지붕에 얹을 때면 집주인들은 물론 일손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명절처럼 흥성이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옛사람들이 읊던 시 《기와를 이세》의 구절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토역군들 허리를 바싹 꾸불고
…
올려만 달란다 지붕날개의
기와를 이세 기와를 이세

혹시 중국동북지역을 비롯하여 이역에서 조선기와집을 짓고 사는 독자여러분도 이 시를 읊으며 기와를 얹지 않았는지.

오늘 조국에서는 이르는 곳마다에 새 거리들을 일떠세우면서 조선기와장식의 우수한 점들을 살려 현대미와 고전미가 결합된 건물들을 많이 짓고있습니다. 평양시에만도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고려의학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조선식합각지붕을 얹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삼지연시에도 청기와를 얹은 천지원, 베개봉국수집이 시의 중심에 자리잡고있습니다.

지난 기간 조국을 많이 방문한 중국 료녕성에서 사는 리보배동포는 세월이 흘러도 우리 민족의 향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민족적인것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동포여러분, 그럼 우리 생활에 어려있는 민족의 향기에 한껏 심취되여봅시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유모아

노력은 들이지 않고

한 초학도가 이름난 발명가에게 편지를 했다.

《제가 듣건대 물고기뼈속에는 많은 량의 린이 들어있는데 린은 뇌에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물고기를 얼마만큼 잡수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종류의 물고기를 자셨는지 알려줄수 있겠습니까?》

발명가는 곧 회답했다.

《당신은 한쌍의 고래를 먹어야 할것같습니다.》

*　*　*

《침구경험방》과 허 임

허임(1570년-1647년)은 저서 《침구경험방》으로 유명해진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고려의학자이다.

부모의 병때문에 의사의 집에서 잡일을 하면서부터 의술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침구술을 익히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이였다.

침구술을 체득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그는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고 치료요령들도 익히게 되였다.

그의 침구술은 점차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으며 의관벼슬인 시의로까지 등용되였다.

그는 의료활동을 시작한 초시기부터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켜야 의학을 발전시킬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1644년에는 자기의 오랜 의학활동경험을 종합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침구학전문책인 《침구경험방》을 편찬하였다.

70여개의 항목으로 갈라 한권으로 편찬된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여있다.

총론에서는 잘못 잡을수 있는 혈들의 위치, 여러가지 병들의 증상과 그것이 5장6부 및 경락과 련계된 관계, 12경맥에 속한 혈들가운데서 병치료에 많이 쓰이는 138개의 혈의 위치와 작용, 침뜸의 적응증과 금기증 등이 간결하게 서술되여있다.

각론에서는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리로 내려오면서 해당한 부위와 장기들에 생기는 병들의 원인과 증상, 침뜸치료법들을 소개하는 한편 외과, 전염병, 부인병 등 계통별로 갈라서 침뜸치료법들을 편람식으로 묶었다.

책은 당시 우리 나라 침구학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을뿐아니라 이후시기 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새롭고 독특한 자기식의 침구보사법도 내놓았는데 침을 놓는 방법에 따라 환자의 반응상태가 달라진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였다.

오늘날 이 침구보사법은 《허임보사법》으로 불리우고있으며 침놓는 수법의 하나로 적용되고있다.

*　*　*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18)

함경남도의 특산—가재미식혜

예로부터 수산자원이 풍부한 조국에서는 물고기를 삭혀서 만든 식혜음식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그에 대하여서는 《세종실록》이나 《미암일기초》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 기록되여있다.

특히 식혜는 함경도에서 잘 담그었다.

함경도 특산료리인 식혜는 물고기의 종류와 그 가공방법에 따라 맛과 향기가 다양하였는데 가재미나 명태를 제일 좋은 재료로 여기였다.

특히 함경도녀인들은 가재미와 같이 기름기가 적은 물고기로 얼벌벌하면서도 산뜻하고 달작지근한 맛좋은 식혜를 담그군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함경남도의 북청참가재미식혜가 유명하였다.

북청참가재미식혜는 참가재미, 좁쌀, 무우, 파, 마늘, 생강, 소금, 고추가루, 길금가루를 넣어 만들었다. 먼저 참가재미를 소금에 하루쯤 절구었다가 토막쳐서 좁쌀로 지은 조밥과 다진 마늘, 파, 고추가루, 생강, 약간의 길금가루를 두고 버무려서 단지에 넣어두었다가 2~3일 지나 무우를 썰어서 양념한 참가재미와 섞어 숙성시킨다. 이렇게 담근 북청참가재미식혜는 그 맛이 산뜻하여 입맛을 한결 돋구어준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박사 부교수 김선영

야 화

갓쟁이한테 존경어를

어느날 신재효(1812년-1884년)는 친구와 함께 저자거리에서 갓을 사게 되였다.

그는 한사람에게 물었다.

《갓을 팔려고 하십니까? 값은 얼마입니까?》

갓을 팔러 나온 사람이 값을 불렀다.

신재효는 좋은 갓을 고른 후 값을 치르었다.

《잘 쓰겠습니다.》

신재효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친구가 의아해하여 물었다.

《자네 그게 무슨 실수인가?》

《실수라니?》

《갓만드는 쟁인바치한테 한다하는 량반이 그게 무슨 꼴인가?》

《하하, 내가 그 쟁인바치에게 존경어를 썼다고 나무라나? …》

신재효는 호탕하게 웃었다.

당시 량반들은 천한 사람에게 절대로 존경어를 쓰는 일이 없었으며 더구나 쟁인바치들은 사람값에 치지 않았으므로 천대하고 하대하였다.

그런데 신재효가 그런 갓만드는 쟁인바치한테 깍듯이 존경어를 쓰니 친구가 어찌 의아해하지 않으랴.

한참이나 호탕하게 웃고난 신재효가 대답하였다.

《여보게, 내가 실수한게 아니라 세상풍습이 우습게 돼먹은걸세. 천한 쟁인바치라고 천대하고 하대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만든 갓을 량반들은 제머리꼭대기에 올려놓고 다니니 말일세.》

친구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혀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하하하…》

* * *

회령 3미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와 측우기, 철갑선 등의 발명과 함께 고려자기, 훈민정음을 비롯하여 세상에 알려진것이 많다.

그중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에 소문이 났던 회령3미 즉 너미, 행미, 토미도 있다.

함경산줄기와 그 지맥들로 둘러싸여 하나의 큰 분지를 이루고있는 회령시는 예로부터 강하천이 많고 땅이 비옥하며 이름난 송이버섯 등이 풍부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일러왔다.

바로 이곳에서 첫번째로 손꼽히는것이 너미이다.

일찌기 우리 선조들은 너미로서 용모미, 숙덕미, 지성미를 꼽았다. 미인에게 있어서 미모와 덕은 꽃의 빛갈과 향기로 비유되며 그에 재질이 갖추어져야 《완성된 꽃》이라고 할수 있다는것이 선조들의 견해였다.

회령을 다녀간 중국의 옛 사신은 《조선의 이목수려한 미녀들이 회령에 다 모인듯 하구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그 옛날 우리 나라의 남쪽 지방사람들은 회령규수(회령의 처녀)라고 하면 선을 보지 않고 혼인부터 서두르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만큼 회령녀인들은 마음이 선량하고 의리가 있으며 성실하고 생활력이 강하였다. 옛 기록에 의하면 다른 지방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회령집》, 《회령사람》, 《회령새애기》 등 존경과 사랑의 감정을 담아 불렀다.

회령에서 두번째로 택해지는 미는 백살구의 맛을 가리키는 행미이다.

살구중에 으뜸가는 맛을 가진 회령의 백살구는 나무에 꽃핀 정경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일찌기 이 고장사람들은 백살구꽃이 한창 피여나는 봄계절이면 회령천과 팔을천에 발을 잠그고 꽃잎을 물우에 띄워 보내면서 복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약방의 감초로 불리우는 백살구는 암방지를 비롯한 병예방과 치료에도 효능이 높아 그 인기가 대단하였다.

하기에 오랜 세월 회령사람들의 음식상에는 새콤달달한 백살구절임과 살구무침, 독특한 향기를 풍기는 살구술, 백살구씨를 흰쌀과 함께 갈아서 쑨 행인죽이 자주 올랐다고 한다.

이밖에 이곳의 백토와 도자기를 념두에 둔 토미가 회령 3미의 하나로 유명하다.

회령백토는 오늘도 도자기공예전문가들도 인정하는 품질이 높은 흰 점토이다.

이 백토로 만든 도자기들은 견고하고 형태가 부드러우며 색상이 담박하고 장식무늬가 다양하다.

회령오지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회령오지는 그 색갈부터 독특하다. 일반오지그릇의 색은 흔히 누런 밤색, 검은 밤색을 띠지만 회령오지는 흰색계렬의 시원한 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오지그릇의 종류로는 쌀독, 김장독, 뚝배기, 자배기, 옹배기, 화로, 약탕관 등을 들수 있는데 이것들은 수십년이 지나도 자연풍화되여 깨지거나 터지는것이 없다고 한다.

한편 《회령오지 뚝배기장맛》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오지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그 맛이 한결 좋게 느껴지고 음식이 쉽게 변질되지 않으며 토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오지그릇이 삼국시기부터 생산된것으로 보아 오랜 력사를 가진것으로 볼수 있는 회령오지는 대체로 왕궁에서 리용되였다. 다른 지방들에서는 이것을 자식들의 결혼지참품으로 리용하였다고 한다.

회령3미, 오늘도 이 특유한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속에서 민족의 자랑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사기자 조선일

평양의 모란봉

모란봉은 평양의 자랑으로 먼저 꼽게 되는 명승지이다.

모란봉이라는 지명은 산봉우리들의 모양새가 금시 피여오르는 모란꽃을 방불케 한다 하여 불리우게 된 이름이다.

기묘하고 조화로운 땅생김, 짙은 록음, 철따라 곱게 피여나는 꽃들이 하나로 어울려 모란봉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다.

모란봉을 지난날에는 금수산 혹은 함박메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그 지명유래를 보면 금수산은 산의 모양이 마치도 아름다운 비단필을 수놓은듯 하여 부른 이름이고 함박메는 이슬을 머금고 활짝 피여난 함박꽃처럼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모란봉의 가장 높은 곳은 최승대이다. 옛날 이 봉우리에 오승대(다섯가지의 명승을 구경하는 대)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후에 최승대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렀다고 한다.

모란봉은 또한 여러개의 봉우리들과 함께 경상골과 고노골을 비롯한 골짜기들로 이루어져있다.

지난날 평양사람들은 모란봉의 한 봉우리인 을밀봉으로 올라가는것을 매우 경사스러운것으로 여기면서 이곳 첫어구를 경상골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을밀대에서 봄을 즐기는것을 《을밀대에서의 봄맞이》(을밀상춘)라 하였고 부벽루에서 둥실 떠오르는 밝은 달을 바라보는 경치를 《부벽루에서의 달구경》(부벽완월)이라 부르며 이것을 평양8경중의 두가지로 꼽아왔다.

모란봉의 부벽루

을밀대란 이름은 예로부터 평양성안 웃쪽의 산이라 하여 《웃미루》라고 부르던것을 비슷한 음의 한자로 옮긴것이라고도 한다. 이와 함께 옛날 《을밀선인》이 자주 하늘에서 내려와 놀았다 하여 부른 이름이라고도 하고 고구려시기 을밀장군이 이곳을 지켜싸웠다는데서 불리운 이름이라는 전설도 전해지고있다.

부벽루는 고구려시기 영명사의 부속건물로 지은 루정으로서 처음에는 영명루라고 불렀다. 그후 거울같이 맑고 푸른 물이 감돌아흐르는 청류벽우에 두둥실 떠있는듯 한 루정이라는 뜻에서 부벽루라고 부르게 되였다.

청류벽은 맑은 물이 흐르는 절벽이라는 뜻이다.

높이 솟은 을밀대에 올라서면 룡남산과 만수대, 장대재, 남산재, 해방산 등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 지명유래를 보면 룡남산은 옛날 이 일대에 룡이 살았다는 못이 있었는데 그 남쪽에 솟아있다고 하여 부른 이름이며 만수대는 왕의 장수를 바라는 뜻에서 세운 정각이 있던 언덕이라는 뜻에서, 남산재는 평양시가의 중심 남쪽에 있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들이다.

해방산이라는 지명은 조국이 해방된 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현대적인 유희시설을 갖춘 개선청년공원이 있는 고노골이라는 지명은 고니가 많이 날아들던 골짜기라는데서 유래되였다.

오늘 모란봉은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함께 그에 어울리게 건설된 유희시설들과 봉사시설, 휴식터들이 곳곳에 솟아있어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최미영

리장손과 비격진천뢰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이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비격진천뢰를 시험할 장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있었다.

드디여 비격진천뢰의 시험발사가 시작되였다.

《꽝, 꽈르릉!》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발사소리가 메아리치고 멀리 목표로 정한 장소에 비격진천뢰가 날아가 떨어졌다. 조금 동안을 두고 다시금 푸른 섬광이 번쩍 빛나더니 굉장한 폭음이 울리며 흙덩이들이 하늘높이 날고 나무들의 중동이 뭉청 부러져나갔다.

뒤이어 군중속에서 《와-》하는 함성이 일시에 터져올랐다.

《성공이다! 성공!》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말을 주고받으며 모두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경상좌병사 박진도 매우 만족한듯 《장할시고, 참 장해.》라고 연신 입속으로 부르짖다가 돌연히 《여봐라, 이 포를 만든 화포장이 어디 있느냐?》 하고 좌우를 돌아보았다.

장손은 좌병사가 자기를 부른다는것을 알고 얼른 그앞으로 달려가서 군례를 드렸다.

《오, 장손인가? 그간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성공의 날을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롭구나.》

크게 감동된 박진의 음성은 약간 떨리는듯 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야 무슨 수고한게 있겠습니까?》

《무슨 소릴 하나. 자네의 우국충정은 온 나라가 잊지 않을걸세.》

박진은 저도모르게 말투를 고쳤다. 화포장을 그렇게 하대해서는 안될 인물로 보인 모양이였다.

이어 좌병사의 군막안에서는 경주성탈환작전이 토의되였다. 그들은 여기서 습격은 야간에 하되 비격진천뢰의 발사를 신호로 일제히 성을 공격할것을 결정했다.

경주성공격준비는 빠르고도 빈틈없이 진행되였다.

얼마간 지난 뒤 만단의 준비가 끝난것을 확인한 박진은 드디여 공격명령을 내렸다.

장손을 위시로 한 포수들이 먼저 밤을 타서 은밀히 경주성밑에 접근하였다. 포의 설치가 끝나자 장손은 모든 준비가 빈틈없음을 확인하고 일제히 사격하도록 하였다.

하늘을 진동시키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비격진천뢰들이 경주성안으로 날아갔다.

아닌밤중에 홍두깨라고 요란한 폭음에 질겁한 왜적들은 속옷바람으로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여기저기서 진천뢰가 날아와 터지고 갈팡질팡하던 왜병들은 무리죽음을 당했다.

성벽을 타고 넘은 군사들은 맞다드는 왜적들을 용서없이 베고 찔렀다. 곳곳에 화광이 충천하고 우렁찬 함성과 비명소리가 한데 어울려 어지럽게 떠올랐다. 지금까지 조용하던 적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하였다.

싸움의 승패는 공격개시와 함께 결정된것이나 다름없었다.

혼비백산한 왜적들은 대항할 엄두도 못내고 성을 빠져나가 도망치기에 바빴다. 성안에서도 미처 도망 못한 적잔당들을 숙청하는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소탕전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경주성안은 승리의 기쁨으로 들끓었다. 서로 얼싸안고 돌아가는 군사들과 남녀로소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장손도 밝게 웃으며 걷잡을길 없이 솟아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연신 주먹으로 씻었다.

그는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고 먼저 간 안해의 행처를 찾아보았다.

안해의 최후를 목격한 마을사람들은 장손에게 그의 안해가 그 무슨 염초 같은것을 넣은 무쇠덩어리를 터뜨려 왜적들을 몰살시키고 장렬하게 돌아간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리장손은 두주먹을 불끈 쥐고 이 나라 백성들의 복수와 안해의 복수를 다짐하며 분연히 발걸음을 옮겼다.

화포장 리장손은 비격진천뢰를 창안제작함으로써 경주성을 탈환하는 싸움에 크게 기여하였다.

* * *

문화정서생활거점, 교육거점으로 꾸려진 중앙동물원

명승—대성산

조국의 명승지들가운데는 대성산도 있다.

대성산은 평양시 대성구역과 삼석구역의 경계에 있다. 대성산이라는 이름은 고구려시기에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쌓은 큰 성이 있는 산이라는데로부터 유래되였다. 이외에도 대성산은 구룡산 또는 롱산, 로양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웠다.

소나무가 온 산을 뒤덮은것으로 하여 사계절 푸른빛을 띠는 대성산은 그 풍치가 류달리 아름다워 예로부터 평양8경의 하나로 꼽아왔다.

뿐만아니라 인공호수들과 못들, 아름다운 폭포들도 대성산의 자연풍치를 한껏 돋구어준다.

대성산에는 고구려시기의 력사유적들이 많은것으로 소문났다.

이곳에는 3~5세기에 쌓은 대성산성과 20여개의 성문터, 못자리와 물주머니들, 식량창고터, 산성기슭의 안학궁터, 옛 무덤떼들이 있으며 장수봉의 정각, 남문, 광법사 등 력사유적들이 복구정비되여 옛 모습대로 있다.

대성산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들을 감상할수 있는 중앙동물원과 중앙식물원, 각종 유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대성산유희장도 있다.

대성산의 주작봉마루에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다 희생된 항일혁명렬사들이 안장된 혁명렬사릉이 있다.

오늘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대성산으로는 수많은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지성

대성산에 있는 고구려시기 력사유적들의 일부 광법사(왼쪽), 대성산성(오른쪽)

중앙식물원

단풍계절의 대성산지구

향산호텔　　본사기자 김춘혁

조선의 명산 묘향산의 기슭에 자연미와 어울려 들어앉은 향산호텔이 실안개를 밀어내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자태 볼수록 아름다워 흰구름도 산우를 감돌며 갈길을 늦잡고 묘향천은 흰갈기를 일으키며 그 모습을 노래하는듯 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2080151
http://www.korean-books.com.kp　E-mail: flph@star-co.net.kp